朝鮮日報 夕刊 八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天皇陛下께옵서 內相에 水害對策御下問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今次 關東, 關西를 擁襲한 水害의 甚大함을 기피 御軫念하옵시사 去五日 末次內相에게 拜謁을 賜하옵시고 關東地方의 豪雨被害實情을 御聽取하옵신바 다시 內相은 七日午後四時 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關西地方의 豪雨被害實情을 委曲奏上한바 惶悚하옵게도 陛下로부터 水害豫防의 根本對策에 對하야 고마우신 御下問을 拜하고 恐懼感激한 內相은 水害의 根本的對策에 萬全努力할 旨를 奉答한後 同四時四十分御前을 退下하였다. 內相은 聖旨를 奉戴하야 可及的速히 水害防止의 根本對策을 樹立하고저 目下 土木局으로 하여금 具體案을 作成케하는 中이다

皇后陛下 大宮御所行啓

【東京電話同盟】皇后陛下께옵서는 去廿九日 豪雨때문에 御警衛官의 勞苦를 軫念하옵시는 御仁慈에서 大宮御所行啓를 御延期하옵시었는데 八日午後一時半 宮中御出門 略式鹵簿로 오래간만에 大宮御所에 行啓하옵시사 皇太后陛下께 御對面하시고 여러가지 말씀으로 御團欒 午後三時半御所御出門 宮城에 還啓하시었다

竹田宮妃殿下 目的地에 御安着

【東京電話同盟】竹田宮妃光子殿下께서는 竹田宮殿下께서 今番滿洲로 御轉任하시는데 對하사 去月三十日午後十時十分 新宿驛御出發 二日 神戶出帆 熱河丸에 御乘船 大連御經由 首都新京에 先着하시게 되어 八日 紀卿下의 行動에 關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였다

竹田宮恒德王妃光子殿下께서는 南하시기 回王殿下의 御任地로 向하시기로되어 六月三十日御出發 昨七日 目的地에 御安着하시었다

有馬農相參內

【東京電話同盟】有馬農相은 七日午前 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關東關西兩地方의 水害狀況에 對하야 그 施設과 및 銃後農村問題에 關하야 奏上하야 이에 對하야 惶恐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銃後農村問題에 關하야 기피 御軫念하옵시사 여러가지로 고마우신 御下問이 계시옵셨다 就中水害狀況에 關하야는 特히 詳細에 亘하와 御下問이 계시옵셨다는바 農相은 고마우신 御下問을 拜하고 右諸問題에 對하야 委曲奏上한後 恐懼感激하야 御前을 退下하였다

皇太子殿下 葉山御用邸에 行啓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서는 八日葉山御用邸로 行啓하시었다 이날 御淸爽하신 御服을 입으신 東宮殿下께서는 伊地知御養育掛等이 供奉하야 午前八時赤坂東宮假御所御出門 一旦宮城에 御參入 天皇皇后兩陛下께 御對面, 天機와 御機嫌을 伺하시고 同十時宮城御出門, 同十時十分特別御車로 東京驛御發 同十一時十五分逗子驛御着, 葉山御用邸에 行啓하시었다 當分間御用邸에 御滯在하신後 日光으로 行啓하실려이다

事變目的達成目標下 明年度豫算方針決定

一般經費緊縮코 消費節約實踐

【東京電話同盟】昭和十四年度豫算編成方針은 八日定例閣議에附議, 池田藏相欠席으로 石渡大藏次官으로부터 說明承認을 求하야 此를決定하였는데 編成方針의 大綱은如左하다

◆昭和十四年度豫算編成에關한件

昭和十四年度豫算編成에있어서는 刻下의 施設은 專혀事變目的의遂行을 目標로 此에着手하야써 軍의需要充足에遺憾이업기를 期하는同時에 銃後의國民經濟維持에 留意하지안흘수업다 그리고此를爲하야는 財政經濟의現狀에鑑하야 物資, 資金, 財力等의 需給及輸入力의關係를 較量하고 또一般經費를 緊縮, 政府스스로 消費節約의 實踐에努力하는것이 가장肝要하다 따라서 各省은國家의 全局을보아 所管事務의 立場에 偏行하는일이 업기에 努力하야 左記의方針에 準據할것

一、各省의新規經費要求는 現在의 時局에鑑하야 참으로緊急不得已한것에限하야 또그金額을 可及的小額으로할것

二、各省新規要求經費의財源은可及的 此를既定經費의節約에求할것

三、官吏定員의 增加는 原則으로此를避하고 그不得已한것은 可及的既定豫算人員의 繰替에依할것

四、諸般施設의不備不便은 참을수잇는데까지참고 現狀改善을爲한 積極的施設에要하는 經費新規要求는 此際에 避할것은 勿論諸 既定經費에對하야서도 適宜의削減을 講究할것

五、土木、營繕等物資、資金、勞力等을만히要하는 事業에 對하야는 新規經費의 增加를抑制하는同時에 既定經費에 對하야는 徹底的으로節約할것

六、外國出張旅費 海外物資購入費等外國에 支拂할것에對하야는 新規經費規定經費共히 特히 必要한境遇를 除하고는此를計上치아니할것

七、補助費 助成費其他一般經費에對하야도 再檢討를하야 極力節減繰延할것

八、概算을伴하는 物資의需要量等에對하야는 別途大藏省의定하는바에따라 物資需要調書를提出할것

九、各特別會計에 잇서서도 右方針에準하야 概計를作成할것

一○、各特別會計에 잇서서는現下의 時局에 비치어 臨時軍事費또는 一般會計에 對하야 될수잇는대로 多額의 繰入을하는等의 方法을 講究할것

約二十里穿孔! 鈴木部隊敵陣突破

【石家莊八日發同盟】曲沃東南方地區에서 攻擊前進中인 鈴木部隊는 細川南部部隊一部의 協力을어더 七日早曉부터 午正까지의새에 堅固한 敵陣地의 中央突破를敢行, 幅二十里되는 敵陣穿孔에 成功하게되여 至今에 敵第二線據點인 絳縣西南地區로 進出하야 敵에 全面的大打擊을주엇다 鈴木部隊의 이驚異的進擊으로 敵陣全般은 大動搖를 招來하야 敵은 續續垣曲方面으로부터 退却中이다 그리고 鈴木部隊에依하야 敢行된 敵陣中央突破의 成功은 마치 奉天大會戰의 勝敗를 決定的으로 만든 近衛師團의 敵陣突破에 比할만한것으로 戰果가 極히 큰바 爾後友軍의 作戰을 極히 有利하게引導할것이다

漸次壓迫中 新絳附近의 頑敵

【石家莊八日發同盟】新絳附近에 蟠居한 敵은 多數를밋고 頑强히 抵抗을 試하고잇든바 小林細川部隊等은 斷乎積極的攻勢로나아가 漸次이를 壓迫하고 戰果를 擴張하는中이다 그리고酒水、萬城目部隊는 友軍과 聯携하야 ○○西方으로부터 所在의 敵을 驅逐하면서 ○○으로 向

曲沃南方據點 山岳地帶占據

【石家莊八日發同盟】眞野、小林兩部隊는 細川、南部各部隊의協力을어더 曲澤前面의敵을 南方으로壓迫하고 七日午正에는 曲沃南方二十里 標高四百米되는山岳地帶를 確實히占據하야 今後의戰局을 有利하게 展開시킬據點을獲得하였다

支那軍毒瓦斯使用

【石家莊七日發同盟】六日午前曲沃南方約三里의 東下店에서 支那軍은 일즉부터 이일이잇다 我軍은 又復毒瓦斯를 使用하엿슴것을 豫想하고 防毒마스크를 準備하고 잇슨關係로 이를 防禦하엿스나 訓練이 缺乏한 使用法에 精通치못한 敵은 때마침 逆風關係로 自己 毒瓦斯를 바더 多數의死者를냇다 我軍에서 敵이 使用한 毒瓦斯를 分析한結果 지허괴뢰化砒素라고稱하는 毒瓦斯로 敵의 이國際法規를無視하는 不法行爲에 皇軍將兵은 모두 憤慨하고잇다

外務省覺書內容

佛蘭西의西沙島占領에對한

【東京電話同盟】佛領印度警備隊의南支那海西沙群島不法占據問題에關하야 外務省에서는七日午後四時아르센·앙리ー 駐日佛大使의來訪을求하고 堀內次官으로부터 左의要旨의 異議公文을 手交, 本國政府에 傳達件을 依賴하는同時에 帝國政府의 見解를述하고 會談을 마첫는데 特히 安南人巡警의 駐屯은 我國에가진 同島의 權益과 밋 이에基因한事業從業者와의 間에 不測의 過誤가 생길念慮가잇는 點에 對하야 佛國側의 注意를 喚起하는 同時에 警官의撤退를 希望한바 잇섯다

覺書要旨

西沙群島에 關하야는 昨年九月在京佛國大使의 覺書에依하야 佛國은 同群島의 領土權을 主張하나 右에關하야는 佛支兩國間에잇서 係爭中인때문에 右紛爭이 解決되기前에 同群島를 領有할과가튼일은업슬것이란旨를 通告가잇섯스나 右는 從來同群島에 關하야支那側을 交涉相對로 하여온日本側의 立場을 變更할수는업는것이다 佛國政府는 日支間의 事變繼續中 突然如斯한昨年의 覺書와 矛盾되는 處置를取하야 西沙群島의 領有를通告하여 온것은 그眞意를諒解하기 困難한바이다 客年八月以來 帝國海軍은 南支沿岸에對한 交通遮斷을 實施하고잇는터로 帝國政府는 將來右作戰上必要한 境遇또는 帝國臣民이同島에서 所有하고잇는 事業上의權利를 保護하기 爲하야必要라고 認定하는境遇에는 各其適當한 處置를 取하는일이 잇슬것을 附言한다

明年度豫算編成遲延

水田財務局長은 近近成案을어더 十三年度實行豫算案을 携帶하고 大藏省과 折衝次渡東할터인데 다시明年度豫算編成方針의 打合이終了되는대로한번歸任할豫定이다 總督府에서는 그때에다시明年度豫算編成方針을決定 곳編成에着手할터인데 今年은 時局關係事務가 輻湊함으로 多少遲延되여八月上旬으로될모양이다

作戰上必要잇스면 適宜한處置斷行

003421

各機關重慶移轉 國民參政會可決

【香港七日發同盟】七日부터 本格的討議를開始한 國民參政會는 七日은 漢口陷落後 如何히할것이냐의 問題에 對하야는 軍事委員인 蔣介石에게 一任하는 形式을 取하고 既定된 各機關은 重慶으로 移轉할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目下議題로 上程되어잇는 主要한 議題는

一、各議員으로하여금 그地區의 金力及 物力提供에 對하야 宣傳을 行케할것

一、講和問題

一、인풀레의經濟與論問題

一、集地의經濟建設問題

等인바 어느問題도 會議그自體가 協議機關에 갓치는以上 政府案을그대로受諾하여 發表하는것에 不過하는 國民의 總意參政會의 決議로 하는 形式이되므로 國民政府의 責任逃避의 口實이되는데 不過하다고하고잇다 그리고參政會議員中 國民政府의 將來에對한希望을가지지못하야 辭退하는者가 續出하야 마치내最初의豫定인 七月一日에는 開會치못하고 地方官民을 半强制的으로 끄러내여겨우開會하게되엿든것이다

錢塘江上의敵船 約百隻爆擊沈沒

【南京七日發同盟】陸의荒鷲押目飛行部隊는七日早朝中支戰線一帶를 펴붓는비를무릅쓰고 ○○基地를出動, 錢塘江南岸에 繫留中인 敵軍船을發見하고 壯烈한爾中爆擊을 敢行하엿고 또支流浦陽江의津浦附近에 繫留中인 軍需品을 滿載한 軍船約百隻을攻擊하야 殲滅的打擊을 주바그中數隻을炎上케한後 全機凱歌를부르며 ○○基地로歸還하엿다

肅正工作犧牲者

【東盛發情報】肅正工作에 들애여서 蘇聯을 등지고 歸的行動으로 東士滿洲國으로脫出한 「류시코프」大將에 關한 報道는 全世界에 큰 「센세이숀」을 주고잇는데 最近數年間에 蘇聯을 脫走하고 또는 歸國을 拒否한 要人은 左와 如히 多數에 達하엿다 蘇聯國內의 事이 얼마나 深刻한가를 엿볼수잇다

▲一九二九年十二月 巴里駐在大使베세도프스키 巴里에서逃亡

▲一九三○年四月六日 스톡코롬駐在公使館參事官드미드리에프스키歸國拒否

▲一九三○年六月二日 제·헤·우在外蘇聯商務官 아가베코프 巴里에서 歸國拒否

▲一九三○年六月四日 아르가니스란駐在大使波斯에서 歸國拒否

▲一九三四年 六月十六日 極東飛行將校二名 軍用機로 滿洲에逃亡

▲一九三七年八月十五日 在芮里通商代表 蘇人部 指導者 스하야 歸國拒否

▲一九三七年十月二十一日 에스토니아駐在公使館一等書記官 리아시歸國拒否

▲一九三七年十一月二十二日 아테네駐在公使 바미逃亡

▲一九三七年十二月十五日 在巴里蘇聯通商代表 루미쉬스키

▲一九三八年一月 前赤軍參謀次長 駐佛(內一名은赤軍少將)로루코預拒否

▲一九三八年一月十二日 부하레스트駐在代理公使오스트로프스키逃亡

▲一九三八年二月十七日 부하레스트駐在代理公使 부테코 羅馬에逃亡

▲一九三八年二月 蘇聯飛行將校 우니제프스키及偵察兵一名 코로프 에스토니아 에逃亡

▲一九三八年四月 불가리아駐在公使 라스콜리코프歸國拒否

反政府空氣濃厚 赤軍大演習不可能?

【華盛頓七日發同盟】蘇聯赤軍은 每年五月부터 九月까지 軍團對抗演習 其他大小의 演習을實施하는것이 例로되여잇든바 七日부다페스트發行 페스토이드紙에 依하면 赤軍內의 反政府空氣는 最近極히 濃厚하야 大軍隊의集結은 此際 危險하다는見地에서 今年度赤軍大演習은 中止할模樣이라한다

石家莊領事館開館

【東京電話同盟】外務省에서는北支 石家莊에 領事館을 設置하고 來十五日부터 開館할旨 八日官報로써 告示하였다

池田藏相感氣로欠席

【東京電話同盟】池田藏相은 感冒로 麻布永坂自邸에서 靜養中으로 八日 閣議에는 欠席하였다

閣議決定事項

【東京電話同盟】

一、朝鮮刑事令中改正의件

辭令

遞信異動(七月六日附)

依願免本官 京城郵便局長 遞信副事務官 小城 文八

釜山郵便局長 遞信副事務官 廣生 憲治

命京城郵便局長 釜山遞信分掌局監督課長 遞信副事務官 見野 禎藏

命釜山郵便局長兼務 京城無線電信局 遞信書記 山本 末吉 依願解任

命大邱無線電信局長 大邱無線電信局長 遞信書記 瀨戶口 彰

命監理課勤務

本社辭令

(七月一日附)

營業局長 金 光 洙

兼任印刷部長 印刷部長 崔 益 進

依願解任

(七月六日附)

出版部主幹 依願解任 李 殷 相

人事·集會

▲蓮尾眞六郎氏(總督府殖産局長) 渡東中 八日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驛着歸任

▲木野藤雄氏(總督府産金課長) 同上

▲森井武次氏(朝鮮運送株式會社陸運課長) 新任人事次來社

山西에潛入한敵 總數四十個師 但, 烏合之卒同樣

【石家莊七日發同盟】目下山西省에 潛入蠢動中인 敵總數는 四十個師에達하엿는데 그主要한者의配備는 如左하다

一、同蒲線沿岸 主로臨汾南方同蒲沿線에 蠢動하고 그根幹이되여잇는者는 中央軍第七、十二、八十四、八十五等의 各師이다 此等은 極力我軍과正面衝突을避하고 夜陰에乘하야 出沒하야 線路의破壞 部落의 掠奪暴行等 온갓手段의暴惡을 다하야民衆怨嗟의的이되여잇다

二、臨汾北方山岳地帶 어方面에는 舊山西軍이 我에 抵抗할 氣力도업고 各地에分散하야雖城約存在로化하엿다

三、山西西南運城附近 이方面에는四川軍陝西軍約十五個師가充滿하야 이미糧秣食糧이欠乏되여 벌써烏合之卒과 다름업서서 我軍과一戰을交할 氣力은 勿論업고 이미逃亡者續出하여 陝西人選의態勢를 示하고잇다

時事解說

湖口占領과閉塞線啓開

世界戰史上에 볼수업는 敵中溯江作戰을 敢行하야 南京漢口間의雄都 安慶을 陷落시킨皇軍은 지난 六月二十三日 我陸海軍合動으로 溯江進攻作戰을 繼續하야 江上에 無數한 機雷와 閉塞船과障碍物을 排除敵開하고 七月四日 湖口를奪取하고 攔江磯中에는 一定한位置에 繫留하는布設機雷와 一定한水深에서 自由로 浮遊하는 浮遊水雷兩種이잇는데 모두 어느程度의 深度에 敷設해다가 水面으로 通過하는 艦船의底部에 衝擊爆發하는裝置이다

다음으로 閉塞船은 閉塞戰에使用하는 器材로 閉塞戰에도兩種이잇스니 敵艦의侵入을 防備키爲하야 自港口에 艦船을 沈沒하는것과 敵의行動을擊肘코저 敵根據地港口를 閉塞하는兩種으로 前者는現在支那側의揚子江防備作戰에屬하고 後者는日露戰當時有名한 旅順閉塞戰이될것이다 어느것이나 廢艦이나 商船等을 艦船通行水路要扼에 自爆시켜敵의機動力을 擊肘하는것으로 機雷閉塞 防柵어는것이고 이를布設한 區劃을 閉塞線이라고한다。

今番湖口要塞陷落에잇서서도 이作戰期間中 掃海處分을한機雷數가 二百五十六個의多數로 主力部隊가 溯江하기前에 掃海作業班의 苦心은 實로偉大하다고 할것으로 이堅固한 閉塞線을特殊한技術로 爆破開鑿하야友軍의進攻路를 여는것을일러 閉塞線開啓라고 일어는것이다。

八面鋒

◇ 별서 明年度豫算編成方針을 閣議서 決定。

◇ 曰 各省經費는 時局에 鑑하야 緊急한것에 限할것。

◇ 曰 新規經費는 各省과가티 既定經費의 節約에따라 財源을 捻出할것。

◇ 曰 特別會計에 잇서서도 一般會計에 準하야 節約하되 財政의 餘裕는 一般會計及臨時軍事費에 充當하도록할것이라고。

◇ 要컨대 軍事費를 捻出하기 위하야는 다른 經費를 節約하라는것。

◇ 五億五百萬圓을 넘는 今年度總督府豫算 明年度는 얼마로 하라는가。

◇ 國民된 義務로 納稅는 負擔해야겟지만 生活을 極度로 壓迫치 안는 程度로함이 長期戰에 堪耐할 能力이 생긴다。

◇ 구진비 오락 가락 장마때가 되엿는가。

◇ 철찬아 올바에는 올때로 오고말라。

公賣公告

左記ノ通リ城郡內ニ於テ公賣ス

公賣財産及滯納者住所氏名

入札及公賣ノ場所 同上

公賣ノ日時 昭和十三年七月拾四日

入札保證金額 見積價格ノ百分ノ五以上

公賣代金納付期限 公賣決定即時

公賣財産ニ付左記ニ依リ入札スベシ 入札ハ即時開札決定ス

買受希望者ハ當日前迄ニ所在地ニ付實地熟覽ノ上同日午前拾時迄ニ入札スベシ

右公賣ノ日迄ニ滯納者又ハ第三者ヨリ督促手數料及滯納稅金ヲ完納シタルトキハ公賣ヲ取消スコトアルベシ

昭和拾參年七月四日

長城郡 朝鮮總督府郡守

記

公賣不動産ノ表示

土地所在 地番 地目 地積 所有者 住所 氏名

[illegible]

滯納者 朴晶昱

S.M.C 재쓰밴드 大演奏会

創立記念 第一回 團成社直屬

革新團成社의 特別豪華納涼興行

畵線擊利映 第一攻太上 支線總伊時 全線進同 (短篇뉴ー스映)

1. 北支 2. 全線 3. 躍進

7月8日 9日(晝夜) 10日(晝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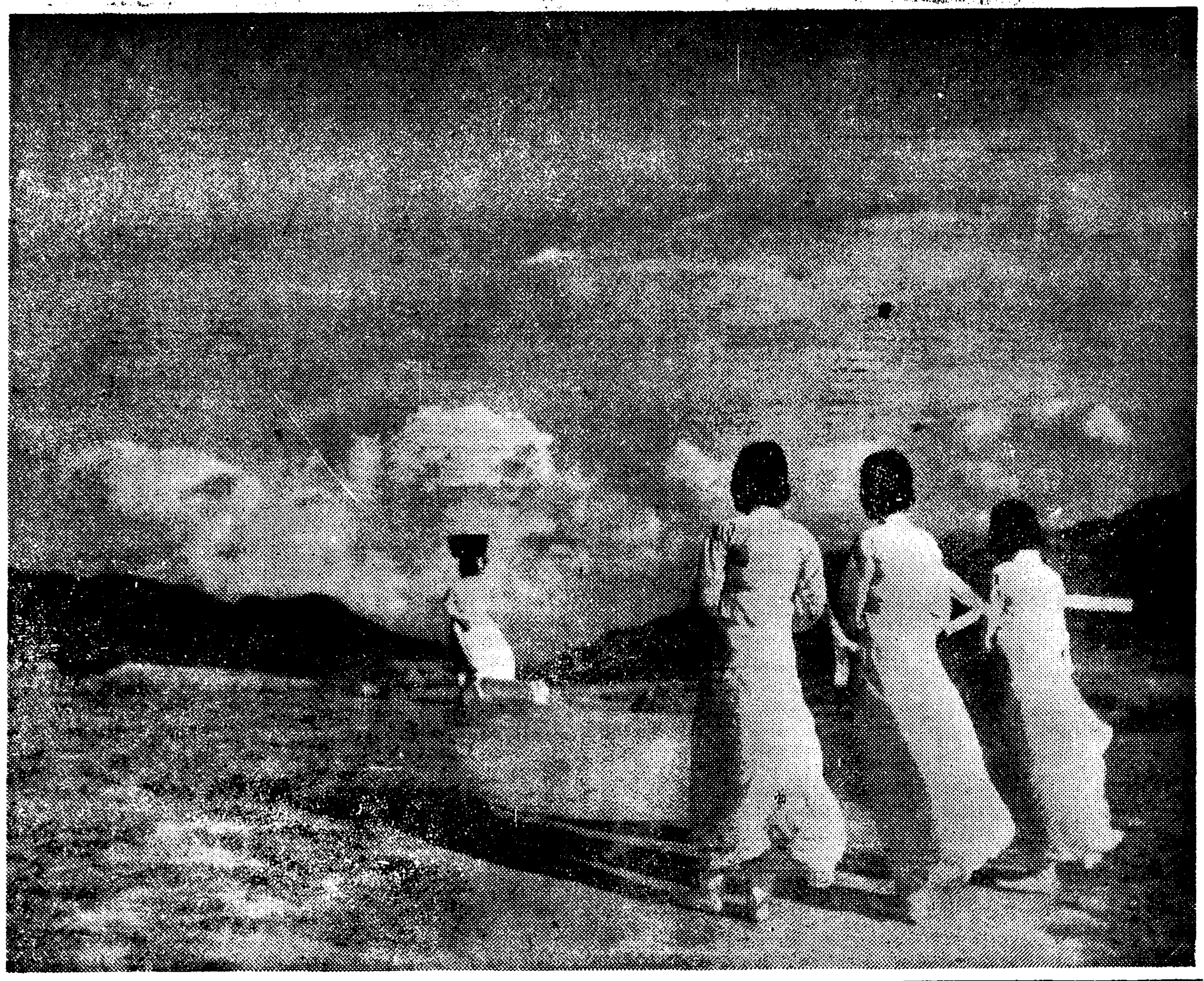
밤七時半 낮一時

S.M.C 재쓰밴드 S.M.C 專屬밴싱팀 S.M.C 넌센스班 總動員

콜럼비아專屬歌手特別出演

S.M.C 재스밴드 李斗南 李準植 朴基黍 張英哉 高永錫 張元培 鄭仁均 鄭成錫 權德順 金鍾英 李一英 콜럼비아歌手 朴一林 南一燕 劉鐘愛 金仁淑 申恩春 李英和 넌센스班 金元浩 申銀鳳

團成社 冷房完備 電話光三九四三



本社懸賞寫眞 一等「여름郊外」 場所=大邱府外大明洞 大邱府京町一丁目一○二 崔季福

五輪大會와萬博
返上、延期는決定的

【東京電話】 기원이천륙백년을 기념하는 만국박람회(萬國博覽會)와 및 올림픽대회는 지난부터 예정안을두고 그준비에 분망중이던바 저나사변이 이러나자 제국은 거국일치하야 난국에 처하야 지나사변을 장기항전으로 인하야 국가는 더욱 다망하여저 감은 명확한 사실로되어있서 그중에서도 긴급한 두가지 문제가 사업은 어떠한 의미가 기중요것은 올림픽대회 만국박람회는 국민정신작흥 시국인식 여하를 불문하고 ... 강대(大藏)후생(厚生)내무(內務)외무(外務)문부(文部)각성과 연락을 하야 논의도 오는중에 있어 장상(藏相)과 각대신의 의견이 일치 하지안코 만국박람회는 연기하기로 결정하야 공정에서 발표되리라한다

만국박람회이라고 중도에 하기로 하야 추진하기로되엇스니 ... 기(延期)를 결정하기로 하는것은 우리하기에 ... 은 국제적으로 중대한 ... 올림픽대회는 반상(返上)하고 만국박람회는 연기하기로 결정한것이라고 보아 제외하기로 ... 다

天水畓도豊作確實
今年農形은樂觀
適時의甘雨와病虫害處置로發育良好
今後는雨順風調의造化期待

豐年의瑞氣

풍년! 풍년이고 부분적으로는 다소피해가 잇스리라고하나 대체로이번비는 어다。 넘어 만양(晩秧)마저 진행되어 더욱이 양은 모든곳이 흡족하리이며 특히 옥에 천수답(天水畓)은모가일직 진도조 행되여 벌써충분히 발육되어가 선에 도열병(稻熱病)과 친노 때문에 도처에 그새벽이부족 놓을 하야뿐러에 때마침이번비에 도 넝의 조치할하야우선 천수답의대풍 서기 장은이미결정적이오 일반다른논 들도 명곳에도열병이 업지안흔 가가 스나 그시기가 일럿기때문에처 독하 치도 민속하야 피해가 그리크 약축 심치 아니 하엿스므로 이것도 복바 전체적인 근심꺼리는될것이업다 이리하야 만앙마자 진행되어 사 람의할일은 곳넘지금은 한울에 ... 는 농촌의기쁨이크다 어번내 린비는 평지(平地)에더럭붓어고 ... 맥처비바람의 고통기만 바랄 어다

伊東技師談

그동안 농형이 매우 순조로웟는데 이번비는더 욱 조핫다 일부에는 조치못한 편도 잇스나 이는 부분적이오 첫째 어번비로 이앙을 전부곳 넘수 엿셋들이오 특히 천수 답(天水畓)의 풍년은 확실하다 도열병도 우려할정도는 아니고 아프로만 우순풍조하면 문제업 시 도한번 풍년만세를 부르게 될러이다

邪戀의逃避行

사십이넘은 인처가 자기집에 드나드는 젊은 목수와 눈이마저 손에손

神戶水害七日狀況

【神戶電話同盟】 신호지의 수재는 광일에 더욱확대되어 죽은사 람과 행방불명된사람한게 욕마 조잡고 도망질친여자가잇다 시내 망하정(光明町)이정목이백 육십삼번지 수하히웅(須賀熙雄) 의처 『야에꼬』(八重子)(二)는자 기집에 일하러자주드나드는 황금정(黃金町)이정목 삼백십팔번 지 목수 산전인송(山田寅松)(二)이와 눈이마저 남편몰래 북의 관계를 매저오다가 남편에 게 들키고서 오일 오후네시경 에 둘이 도망을 하엿다는데정 사할생각가잇다하야 그남편이칠 일아침에 융산서에 수색원을제 출하엿다고한다

▲死者 神戶市二五一 神戶市를 除한 縣下五二
▲行方不明 神戶市三九〇 神戶市를除한縣下三九
▲負傷 神戶市一、一一三 神戶市를除한縣下八六
▲家屋流失 神戶市一、四六一 神戶市를除한縣下二八〇
▲家屋倒壞 神戶市 一、六六八 神戶市를除한縣下二八七

雨期圈內의朝鮮
今夜！暴雨가襲來

【仁川支局電話】 비가 연일나리므로 장마가들엇다더니 개인다고 발표하엿던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에서 또다시 폭우가 나린다고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仁川觀測所發表＝

기상배치를보면 고기압 (高氣壓)은 본방남해상과 천도(千島)에체류해잇고 충남(忠南)바다가 운데와 본방중부에는 적은저기압이잇다 조선서부는 날이개이고 기외는 흐리고 곳곳에비가나리고 안개가끼이다 칠월팔일부터 추풍령(秋風嶺)에는 열에이 『미린』 기타 남선방면에 는 사오십『미리』의 비가나리엇는데 북방에는 다시금 우기에 들엇다 조선은 지나(支那)양자강(揚子江)하류에 잇는 칠배오십『미리』의 저기압이동 진하고잇서 조선을 통과하므로 팔일밤으로부터 구일아침까지에 는 폭우가나린다 유일오후여섯시부터 칠일오전 여섯시까지에나린 각지의우량을 보면 다음과갓다

▲仁川 一〇九미리 ▲京城 一〇七미리 ▲全州 一七미리 ▲木浦 三四미리 ▲元山 一六미리 ▲江陵 一二六미리 ▲釜山 三九미리

京仁間臨時列車運轉

철도국에서는 경성인천사이의 하기객이 만흠에따라 다음과가티밀요일마다 림시렬차두대를 운전하기로되엿다

▲림시객차 오전사백일렬차 경성발 오전여덜시십분 인천착 오전아홉시십사분
▲림시객차 오천사백십일렬차 경성발 오전아홉시십분 인천착 오전열시십이분

水害警防의非常通牒
霖雨期를直面하야警務局의萬全策

장마철에 드러서면서 무엇보다도 걱정되는것이 수해인데 이미 내지각방면에서는 벌써 참혹한수해에 농작물과 인명피해가 만하거니와 이무서운수화에 실은 저기압(低氣壓)은 차다 조금만 큰비가나리면 언어울겨오고 도단의피해를 번복해오는 조선에서도 예년 ... 경험에비추어 다시금각별한 경계와방호가 요구되고잇서 칠일 총독부 경무국장은각도지사에게 수해경방 (警防)에대하야 특전을 발하엿다 하야 만일의경우 유감이업도록 가각방면과 연락협조를 긴밀히 하야 장기전시체제아래잇고 총후의 생업보국과 민중생활의안전을 더욱특별히 고려해야할터이므로 새삼스러게 일반관계자들의주의를 촉진한것이라고한다 ... 사이 특전은 전보다 더욱수방단 소방조등을 활동시킬것은 물론 판

老人轢死

【永興】 함남 영흥군 (咸南永興)에 사는 밤 유성원노인이기차에 치여서죽은 사실이잇다고한 오일오후팔시고원(高原)역을출발한 영흥역에 이를 ... 『영흥』하 야 ... 전에잇는 『호미끼리』에이르자 ... 원뎡이 영흥역까지 일키로된는지 점에잇는 ... 혼 ... 전을고원군군내면 (原郡郡內面中沙里)에 ... 으로 ... 『호미끼리』 ... 아서 어때로인지 중심을잃고 가든중이란는데 마침소한머리를 끌고 으로보여 경영중소장(牛市)에 와달아가는것 참하도 직사하엿다는바 그는 열차에치여 (崔載鉉)이 정기『호미끼리』 ... 서이엿스며 박살시켜는 영흥역에 인도하고잇다고한다

平日의五倍
愛國部에獻納品

성전일주년기념일을 마지하야 조선군사령부에는 칠월일오아침부터 무름쓰고 애국의 정성을 표시하는 헌납이 답지하엿다 그 중에도 ... 에시 ... 八日 ... 그처리에 골몰하엿다 이날오후 약 오배에달하며 애국부에서는 각바면으로 헌납한것이 평일의 어렷! 토이기 이베리끄프씨의 딸은 『전이친』을 헌납햇고또 연다 이외에 부내황금정(黃金町) 풍차 두대를헌납할것을 수속하 며서직원들이 육군병원용 화차자 액국부를방문하고 도전과 소속 경기도지사는 직원 수명과가치 엿다 또오후엿시바경감자(甘藷) 노하군국도 그적성에 감격하 고개보내고십다하고 금일봉을내 고 적은것이나마 제일선용사에 야서현(西脇)고급부관을 회견하 를 ... 한후 군사령부를 방문하 되허 할수업서육군병원의 용사 일금일백원 이뭇잇는 기념일을 기 (土耳其)인『이부라기모프』씨등 중에도 시내에거주하는 토이기 ... 紙二三五、九五〇匹 ... 金杯四 ... 六八袋

朝鮮基督敎聯合會
內鮮敎徒千餘名會合·發會式

조선의 기독교도는 국시(國是)를 몸소바더 전도보국(傳道報國)에 힘쓸것을 목표로 단결 협력을 꾀하는조선기독교연합회 (朝鮮基督教聯合會)는 칠일오후 시내공회당에서 발회식을 거행 하엿다 이자리에는 조선안 각 중요한 도시등을 대표 회원 근천여명 위시내외교도 일천여명 이 참집 하고 남궁혁 ... 이 ... 그다음 선언서를 ... 있섯다

연히 전도단의 주악으로 식은 시작되어 주월지(秋月致)씨사회아래 국가봉창、황거요배、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고 착미、성경낭독、기도가잇슨다음 단우 정치랑(丹羽淸次郎)씨의 식사가 잇슨다음 ... 이 끗나 동이 이러서서 남궁혁의게 경의를 표하엿는데 니어서 남궁혁씨 ... 동、여원(麗原)학무국장 해로해老)일본기독청년동맹 총무의축사가 잇섯다。

宣言 現下我國時局의重大性에鑑하야 國民精神의振作을圖하고 ... 一國民된 ... 國民總動員 ... 鮮에잇는基督敎信徒는團結協力하야 同胞의精神作興에貢獻하고 一層傳道에精進하야 皇國臣民으로서 報國의誠을 다하기를期함

右宣言함
昭和十三年七月七日
朝鮮基督敎聯合會

八千轉向者結束
愛國團體를組織
廿四日府民舘에서發會式擧行

지난삼일 전조선전향자 대표대회에서 현하시국에 대응하야 일본정신에 도라가파거를청산하고 애국운동에 진출하기로 그들의활동에는 기대되는바가만 구체적 협의가잇슨후 이를 전향자 팔천여명을 한덩어리로뭉거 사회적으로 ... 각항에서 ... 이이들사상전향자의 전향운동은 ... 타고한다

... 사회전에 이미일부에서 제창되 어온것이 사변을기회로 전체 로 한층결속을 이루게된것으로 좋 사회인으로서 진정한 국 민으로 도라오려는 진실된 성 심과노력에 감격하야 그요구의 구체화를위해서 여러가지로 준 비해온결과가 어번 애국운동단 체의 결성을 보게된것이라한다 이것은 전조선 각보호관찰소를 단위(單位)로하야 전부를 설치 하게될터이다

朴英熙、李裕璨、金成圩、裵恩德 等의 六名選手는今八日午後十時 五分 京城驛發列車로 合宿地로 向發할터이라한다

人로|·스포쓰 (蹴球候補六名 今夜合宿地向發)

東京에서열리는大會蹴球夏期合宿練習에 參與하는 金容植、裵宗鎬、... 金永根、 ... 咸奕 ... 金鏡 ... 吳 ... 金成 ... 吳天泳、金鍾玉

悲運의貞信校 引繼陳情決議
京城老會幹部會合

지난달 평양(平壤)에서 열린 선교회에서 경성노회 엄시 ... 실행위원회의교회로서 ... 희전 ... 부결 ... 화견 ... 학교중에서 ... 내성신(貞信)여학교는 그대로가 다가는 명년봄에 폐교하게될것 이므로 『정신의살리자』는여론에 호응 기보한바와가티 경성노회 (京城老會)가 지난월말 북장로 교선교총회장 학가푸(咸嘉富)씨 에게 정신을 우리에게 인도하 여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엿스나 회답 내용이 시원치 못하므로 팔일 다서 서대문정(西大門町)××괴어 총회를 열고 여러가지로 토의한결과 어날 오전아홉시반부터 열리는 교회 ... 귀국 시까지 ... 오는십삼일 하는 경신(儆新)학교장 『쿤스』 씨에게 위촉하야 『정신을 경성 노회에 인도하여달라』는 결의 문을 미국전도본부에 전달키로 결의 다유과가티 다섯명의 실 행위원을 선정하야 결의문작성 기타 여러가지 교섭과 준비를 일임키로 하엿다

吳建泳 金禹鉉 金英珠 吳天泳 金鍾奭

全朝鮮씨름 選士權大會
明夜에展開될 六十力士의決戰
長安의人氣를獨占

午后七時半 於本社講堂

장안의인기를 독차지한가운데 명구일오후일곱시반부터 려 본사대강당에서 조선씨름선사권대회가 열릴터인 회를 앞두고 멀리 지방으로부터 향토의명예를지니고 참전하는선사들이속속입경중이며 그중에는 작지않은 예력(豫力)해 에서 유수의씨름꾼들이 ... 영남의 수리 장안 ... 서 열리는대회로 ... 명에 달하야 ... 찌기 본입이업는 초기 을이르고잇다 ... 선 장 ... 학가한선수중에서 우승후보로 목되는선수는 함흥의 헌명유(玄 ... 명환)、평양의허송화(許松和)、대 구의나은상(羅殷相)、홍원의김방 님(金昌烈)、신포의이석주(李 ... 東)군과 청진의고정립(高廷立) 군의대치가 또한흥미의초점이되 여잇다 이날은 청우(晴雨)를불 구하고 결행하리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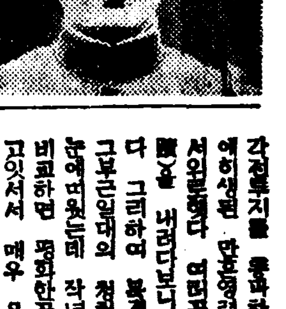
작년의우승자 보성의 장기호(張 기와열의차츰이될 중등학생부는 한 우승후보로 예측되는데 의 최홍규(崔弘奎)군등이 가장유력 최조옥(崔鍾旭)、박대근(朴大根) 에서 활약하는 엄한용(嚴漢龍)、 에는 후보『바른씨름』에는 중앙고대 장군만이 십여 도식

歸省列車
二十日부터運轉

철도국에서는 여름방학의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학생을위하야 이십일부터 다음과가티 『따이야』로 임시 귀성학생열차를 운전케되엿다

▲京城發 釜山行
京城發 午後九時十分
釜山着 午前十時五十分
▲京城發 裡里、木浦行
京城發 午後九時十分
裡里着 午前五時四十分
木浦着 午前十時八分
▲京城發 平壤行
京城發 午後九時五十五分
平壤着 午前五時二十分
▲京元、咸鏡線方面行은 午後十時京城發淸津行에二輛 及午後十一時發咸興行에四輛을增加

"朝鮮民衆의銃後熱誠 前線將兵은眞心感激"
歸還途中의川岸中將車中談



【平壤에서本社特派員發】 북지전선에서 혁혁한공훈을세우고 동부방위사령관(東部防衛司令官)으로 임명되여 귀환도중인 천안문삼랑중장(川岸文三郎中將)을 기자는팔일아침 정주역(定州驛)까지가서 차중에서 마지하엿다 중장은 바로식당에서 아침식사를마치고 전방찬고나왓는데 기자는 그동안여러곳 전투에서만 히수고하바를 위로한즉 중장은 『일년간 도중까지 마지하여 주어 감사하다 일년만에 조선에드러서서 처음으로 조선의아치발을 마니오니 역시조선은 마니 조타』고 하면서 다시 말을이어 고하며 중장은 『연회에 주는 파 머리에힘을 이을때다』 고 우스면서 다른데 가튼 감상을말하엿다

전지에서 비행기로 북경(北京)까지와서 기억이 새로운

각전투지를 통과하면서 전투 에서생긴 만흔병력을 중앙에 서의뜻한다 여러곳 전지 (戰跡)를 내려다보니 감개무량하엿 다 그리하야 북경가까이오니 금부군대의 정정한 활동들이 눈에띄이는데 작년사변당시에 비교하면 평화한공기가 떠돌 고잇서서 매우 유쾌햇다 일 본군에게 저나민중이 신뢰하 야편안히 그업에 종사하고잇 는것은유쾌히 느껴다 천진(天津) 으로 부러 산해관(山海關)으로 지나봉산철도(奉山鐵道)연선을 무이잘되여잇고 금주(錦州)에 는일본인의이주민의 농작물 파 묘목(苗木)이란히 재배되 어잇섯다 예전의열하(熱河) 지나면서보니 만주국인의 농작 고잇서서 일년동안에 만주국 은만큼 발전되엿는가를 알수잇섯다 예전에비하면 겨세의감어 스며 치안이 회복되엿 ... 왈수잇섯다 농업기라산업이만 히발전되여잇는것은 일본의황 도정신(皇道精神)이 철저히미 ... 의국민이 일치협력하야 후원 ... 혀서보을 느꼈다 끄트로 총후 ... 특히 현정을

... 하에는 일반은 감사하고잇스 며 특히 조선인동의 열렬한 후원은 장병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잇다 그리고 기자는 따 로히 조선인들을 면회하고 조선인부대 ... 는 ... 서 분투하고잇는 조선인후 원들도 모두들 건강히 분투하고잇다 수며 동여원동 ... 중장은 모두를 건강히 분투하고잇다 야할데에 그업에 종사하고잇 거리가면 판게로 서신이잘동 하지안키도하나 모두잘잇스니 가족이며 친지들은 안심하라 고 전해주기 바란다고 들벌히 부탁하엿다

기차는 오전열시십분에 평양역 에 도착하니 상내(上內)평남도 지사이하 군관민기타 학생생도 아동、애국부인회、국방부인회、 재향군인회등각단체개인이 이천 여명이나 역전에출영하야 만 세를고창하며 ... 마지하엿 다 중장은 ... 이에거수답례를하여 도열한 ... 부터는 평양신사 ... 평양부의 주최 로 중장환영회를 개최키로 되엿다 그리고 중장은 구일오 전영시십오분에 평양역발 『노조 미』로 ...

北京에서도 內鮮一體

【北京電話】 북경(北京)거류조선인의 ... 는 ... 가조직되어 ... 상무 ... 北京에서도 조선인회가 ... 자발적수사하는 ... 라한다 ... 아니냐 하야 ... 무 ... 무선사이에 여러가지로 외양해 京)에서 일본거류민회(日本居留民會)...의 이래 자발적으로 ... 민(民)을 ... 선인회가 조직을 ... 고잇는데 연락의 ... 조선인회가 일체가되여서 일 기서 자결 ... 바이다

假憲兵嚴探

【城津】 ... 유산계 ... 서에서는 ... (北支)... 다니며 ... 복지자 ... 하는 ... 을이용 ...

色鉛筆

조선의씨름은 고래로전해내려온 유서기픈국기에 속하는 곳에서나 씨름을로 른늣이엇다▲사내 태가 잇는곳에는 승패를가 리되 정신의힘을 유감시별회 한다음에 재간을부려도 역시무 쇠셋과 품근을울러나서 재간 을 보릴수업는곳에 씨름의 용 맹스러운 점이잇다▲씨름의 역 사로 기록에 남은것은 신라新 羅)유리왕(儒理王)때에 여자는베 짜고 남자는 씨름을 하엿다니 그때부터 경기화하여온것을 알 수잇다 지금으로부터 어천년가 까운 옛날의일이다▲그러면 그 때씨름이 파면 운동의 씨름과 가티본가는 문자의 기록만으로 는 알수업는데 그림으로 남어잇 는 기록으로 알려진 예안 등 구(通溝)에서 발견된 고구려(高 句麗)고분(古墳)의 벽화(壁畵) 를보면 두장정이 어우러지고버 동벗등 맞붙버지고 잇는것이오 늘의씨름과 독갓다 어그림의씨 사는 희실치 안코나 적어도일 천오백년 이상의것으로 볼수잇 다▲이러케오랜역사 조선씨름 은 북방에서부터 발전해내려온 용맹스러운 어떤의 백성의 옛 국기인것을 충분히알수잇다▲ 씨름대회를 압두고 우리씨름 기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옛 조상의 용맹을 본바더 체신발 전이잇고저。

總動員聯盟 第一回理事會

어제 총독부 ... 에서 개최하야 충동원으로 총동원 ... 발을 시작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은 오늘 오후두시부터 총독부 회의실에서 열원(鹽原)학무국장이하 상무이사 전부가 모이어 제일회 이사회를열엇다 여기서 아프로 조선연맹의 활 동과내용과 그구체적방침을 결 정하게 될터인데 각지방연맹의 속속 결성과 국민정신운동 의 강화협저와 통제잇는 애국 운동의 전체적 규범(規範)을의 론하게 되리라고한다

(사진은천안중장)

민을 불행하야 동일오후두시 ... 도착할예정 ... 이다

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三〇分兒童時間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趣味講演 申寶均 ▲八時 (東) 獨唱과管絃樂 ▲八時三〇分 歌謠 崔蘭玉 ▲九時 經濟解說 高永煥 ▲九時二〇分 라디오常識 ▲九時一〇分 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라디오見學(哈爾賓) ▲六時二五分(東)同 ▲六時二五分(城)新聞 ▲七時三〇分(城) 라디오常識 ▲七時四〇分(自上海) ▲八時(東)獨唱과管絃樂 ▲八時三〇分(東)漫談 ▲八時四〇分(東)漫談 ▲九時 時事解說

天氣豫報

槪況 氣壓配置는 一段으로 不安定으로 支那內陸、黃海、滿洲西部及 東部中部等에 弱한 低氣壓이잇고 不連續線을 伴하야 東으로 徐行하고잇다 北鮮은흐리고 中部以南은 비가 나리고 西岸에는 안개가끼여 잇다 滿洲도 晴曇不定 內地 는 비가나리고잇다

豫報 今夜는흐리고 小雨가 나릴模樣이고 明日도 흐리고 때때로 小雨가나린다

昨日最高 二三度八
同 最低 一九度九
八日朝最低 一八度九
同正午 二〇度九

印章紛失廣告

本人이從來使用하든直徑八分의圓形印章을去六月二十九日에多數人往來하는途中에서紛失하엿사오니此를拾得한이는本人에게返還하시오 印章은無效로하엿사오니 一般은 其旨를知悉하시기를仰望함

昭和十三年七月四日
咸鏡南道咸興郡府□面元城洞 張國敏

桃屋의 フルーツ 果實罐詰
品質第一等
白桃、黃桃、枇杷、西洋梨
各百貨店食料品店에잇슴니다!
東京 桃屋商店

蔘茸必敎益

高速度強壯劑

身外無物！
健康第一！

우리사람에게 가장貴하고 가장價値잇는보배는 健康이올시다 몸이虛弱함을 慨嘆치마십시오！ 貴下의健康을爲하야 補血、強壯、強精劑인『蔘茸必敎益』이여기잇습니다

特히 여름은 胃腸의機能이衰弱해저 體力이減退되는時節이오니、이때에 잇서서『蔘茸必敎益』을 每日闕하지 마시고、服用하시면 반드시 健康한 몸의所有者가되십니다

適應症 食慾不進、消化不良、貧血症、不眠症、精力減退、榮養不良、神經衰弱、胃腸病、產前產後의 衰弱

價格 五百瓦入 一瓶 四圓

製劑本舖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合資會社 和平堂藥房
電話本局②三〇九番 振替京城一五〇五番

ナショナルランプ에
밝고強한乾電池

는푸람 乾電池
ナショナル乾電池
松下乾電池株式會社

時計
貴金屬
蓄音器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朝鮮
菊正宗
京城・釜山
本嘉納商店

京城鍾路
洋品百貨店
德示
電話光化門二二六四番
振替京城九三五番

中元贈答品推奬

京城鍾路一丁目五四
高級洋品雜貨專門
文化商會
電話光化門一八一八番

豐國製菓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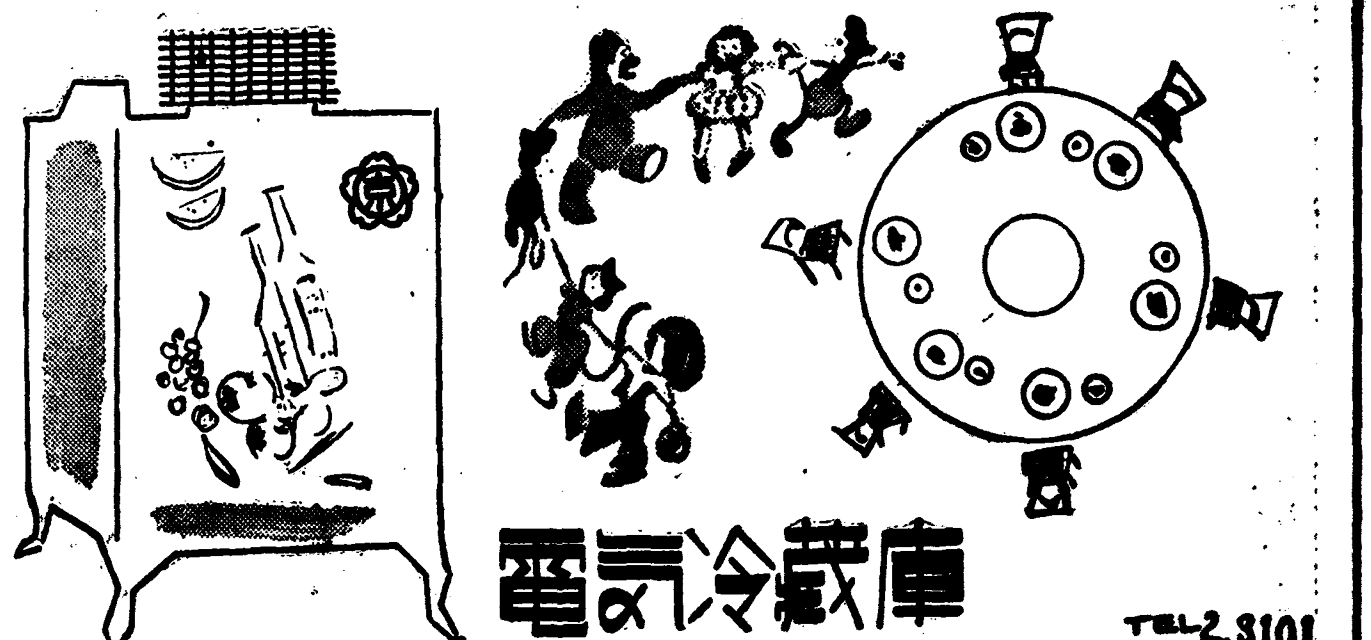
冷用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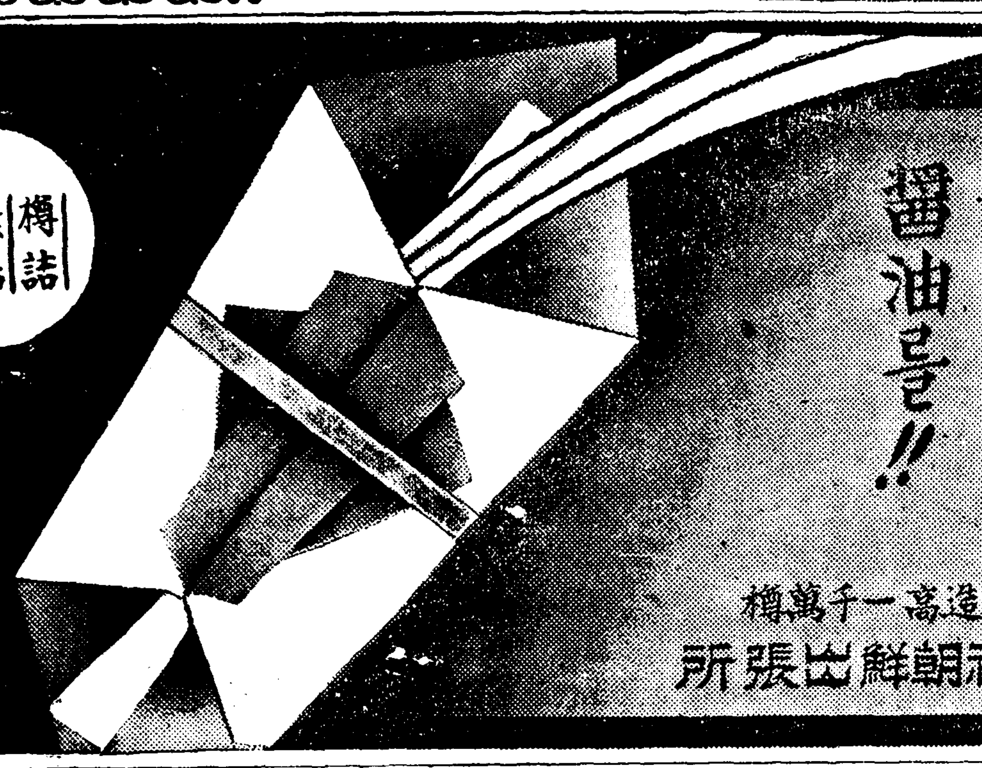
廣藤酒造合名會社

贈答品에는
明治의菓子로

三中井

三越の
御中元賣出
京城・三越

一報次第係員을보내오리다

電気冷蔵庫
TEL 2,3101


樽詰 壜詰 罐詰
非常時에
御中元은
不必要를
除하고
實質的인
醬油를!!
깃고ー만醬油
資本金三千萬圓・釀造高一千萬樽
野田醬油株式會社朝鮮出張所

뭣보다도 適切한 膳物
ミツワ石鹼
미 쯔 와

品質의點으로이것以上
信用되는石鹼은업다

贈答의意義는、物品의選擇으로決定됩니다。實用價値가노픈石鹼、그中에서도그것이保健의必需品으로서無上의品質을가즌ミツワ라면滿點이요

三個函入包（五十錢見當）
半打函入包（一圓見當）
一打函入包（二圓見當）

本舖 東京日本橋兩國
丸見屋商店
電話浪花三二一七
振替東京七一〇

향수이야기

이천송이꼿에서겨우한방울 / 본바닥은아무데도볼만서파리ー

코로 냄새맛는예술

오렌향수의역사는 그만두고라도 알콜이발견되어 향내나는천연의꼬치나 나무에서 향료를 섯기 통틀어 처음으로 향수라는 이름이부터 구라파에 나타낫슬때는 여간 이만저만하게귀중한게아니라 여간사람은 손에 너어보지못햇고 「오ー데코론」이니 「오ー데코롱」이니 「베이럼」 이니하는 갓자고 좋은향수가 [illegible] 그것은 잡목향수라할밧게업습니다。 단순히 「향기」를 애호하는 의미보다 화장수로쓴다거나 [illegible] 하는 [illegible] 향수엿습니다。

그러나 화학이 진보됨에따라 천연향료도 만히나게되엿고 도 인공적으로도 향료를만드러내게 되어 천연향료가업드래도 조흔 향료를 [illegible] 그뿐만아니라 어떠한향수를 조합하는데도 화학적합성법이필요하게되엿는데 이방법은 주장 [illegible] 라마우라는것을 원료로하게됩니다。 [illegible] 라마우에서 향수가납니다 하니 누구나 놀라겟지만 라마우에서는 향수뿐아니라 고운여러가지물건과 [illegible] 나게되니 현대화학의진보야말로 놀랍습니다

오늘의 향수도 그종류가 [illegible] 파리ー의 일류향수집에서 파는향수 [illegible] 인도통지로 보내는향수까지에는 여러치이 잇습니다 향수의 제조도 십오륙년전부터 파리ー본바닥에잇는 두서너집 유명한 향수제조업자가 전세계에 고객을두고 대량생산을 하기때문에 지금은 [illegible] 손에너흘수잇지만 그전에는 좀처럼 손에서도 살수업섯습니다

어떻잇는 향수집은 현판울안 붓처도 별리 그이름이 떨처잇스며 손님에게 내놋는것도 [illegible] 꼭 그향기와 배의모양어두록해서 그향수를 만들어내는방법만 하드래도 자계손에 비밀로 [illegible] 지중해 [illegible] 「니ー스」나 「기라스」 저방 [illegible] 멀리 「모롯코」 동지에 화원을두고 [illegible] 향기를 [illegible] 이런향수라야 [illegible] 니다。 파리ー사람들의 자랑은이런향수를 [illegible] 잇습니다。

향료의 연구는 화학자의 힘을빌지안코는 안되겟지요 그러나 [illegible] 조합하는데는화학자로서는 도저히 따를수업습니다。 [illegible] 여기에 수백가지 [illegible] 다。 그조합에도 [illegible] 잇스나 무쳐진하게 조합하야 [illegible] 「향긔」 [illegible]

한내의 조합으로 생기는 조수도 잇다는겁니다。 [illegible]

이미 되어잇는 향수를 [illegible] 화학이 발달되엿다해도 인조향료만으로는 조흔향수가 안생겨나니까 아직은 값비싼 천연향료를 [illegible] 여기서 나는 천연「장미」향유는 한키로그람에 수천원식 갑니다 한방울의 「장미」유를 맨드는데 이천송이의 장미꼿이 든다고하니 값비싼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귀중한 장미 [illegible] 수한방울이라면 향수가뭐는나하

家庭

가정에향하는적신호

장마끄테나는 무서운전염병

이점만은명심해둡시다

전염병은 아조장마철보다도장마가 지나간담에 오는것입니다 아직우리는 장마를 격지안엇거니와 하여튼 요즘이 제일병나기쉽고 어려운때입니다

모든것이 축축하게 습기가배고 의복가튼것도 미처빨내을못해서 때무든 자리에서 곰팡이나고 파리가갈코 어쨋든 이러한 모든것이 병나는 원인이것은 더말할것도 업습니다.

어와가티 위생적으로 대단히나쁜데 일반으로 신진대사가조치못하기때문에 소화불량이되기쉽고 차게자서 가벼운 감기에 란도틀면 곳병을 이르키는수가 만습니다.

전염병이 전파되는 경로는대체로 병을가진 사람과 건강한 사람새에 파리란든지 채소, 우물족, 이런것들이 가운데서 중매를 드는것입니다. 그러므로미리 예방하는데는

一, 손을씻쓸일. 공동변소에서 손에 세균이 붓는것을 알지못하고잇거나 또는채소, 파실, 무엇이나 또는언제든지 손에 미균이 붓을기회가 만흠으로 외출하고 도라오든지 일자리에서 도라오거든 꼭 손을씻드답만을 가지도록해야합니다.

二, 냉수를먹지말일。지금은우물물을 그대로 먹는사람이 드물지만 여름에 멱다고 별로깨끗지도못한 샘에가서 냉수를떠다가먹는데 그것도 더위험합니다.

그리고 생으로된것 말하자면 실과가튼것 채소가튼것은 여러사람이 손으로 만진것이기때문에 아무때도 그냥먹는것이 조치못합니다.

三, 채소와과실의소독 우리는 아직 차를별로먹지안치만 여름엔 보리차를 끄려서 식혀두고 먹으면 맛도 구수하고 미균의 근심도 덜해서 좃습니다.

병균은 의례 환자의뒤보는데 섯겨잇는것이므로 채소를 날것으로 먹는데는 상당히 주의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더구나 서울농촌가튼데는 개울물에서 빨내하고 심지어 거름까지해주고 또다시 거기에다 물에 배추니를 씻처먹으니 병

한여름잘지내면 가을엔살이올라

어린애기의여름나기

어떠케거둘까?

이제부터는 점점더 무서운 더위가 올것입니다. 이러한 철에는 건강하고 무병한 아이일지라도 가튼 할수잇는대로 의복을엷게하여서 일광에 팔다리와 등을 죽이게하십시요 옷은 해수욕복가튼것이 조흡니다.

그러나 배는 차게하면 못씁니다 낫에나 밤에나 배꼽이 [illegible] 를 배주고 그밧긴 그냥 드러내놋코 다니게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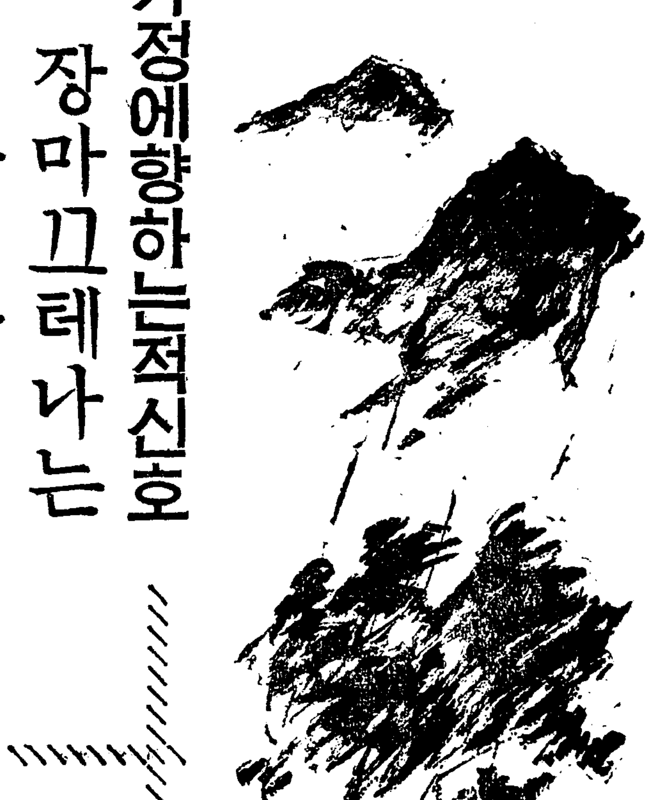
그리고 땀이흐르니 나니까 하루에 몃번식 물수건으로 대여섯번식 몸을 씻처서 늘 깨끗하게해주십시요. 그냥수건으로 씻처서는 때가 잘 씻기지안흐니 되도록 늘 몸을 씻처주면 더욱조흡니다.

또 더운물을 불에 너무 뜨거운 [illegible] 아이들이 일사병에 걸리기 쉬우니 반드시 채이 넓은모자를씌워주십시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일 조흔것은 낫잠입니다. 어떤노인들은 아이들이 낫잠을자면 하길을열린다고 질색을하는분이 잇는데 그건 공연한말이고 되도록 점심후 한시로부터 두시사이에 삼십분가량이나 한시간쯤 낫잠을재우는것이 대단히 조흡니다.

여름엔 밤이짤고 해가길고또 여러가지로 몸이 몹씨 피곤한데 이낫잠은 아주 조흔 회식을줍니다.

그러나 너무오래자면 되려게을러지기쉽고 밤에 잘자지못하므로 조치못합니다 또는 모기나 파리는 아이들의 잠을곳차게 방해할뿐아니라 여러가지로 병을가지고 다니므로 꼭 모기장을 치워서 재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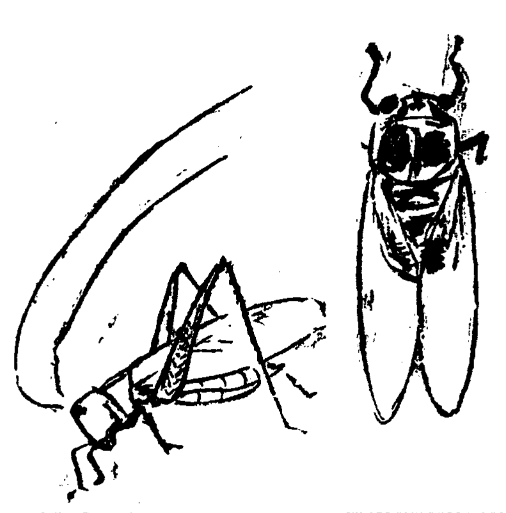
지차리우

우는벌러지

매미, 여치, 벳쟁이, 귀뚜래미…… 가튼우는벌레는 모두숫놈이 울지 암놈은 울줄모른다。

모게가「앵」하고 소리를 내는것은 입으로 우는 소리가 아니고 날개치는소리다。

(동요작가 윤석중)



여름채소와과실로되는

홍륭한화장수

벗에견데써잘듯습니다

토마토화장법

토마토를 껍데기채 두쪽에 내여가지고 먼저 얼굴을 더운물수건으로 찜질해서 혈구멍을 활짝 열어논다음 조개는 토마토를 문지릅니다.

그러다음 한 이삼분동안 그대로잇다가 토마토즙이 얼굴에 완전히 배여든다음 비누를 써서 얼굴을 씻습니다. 그러케하면 토마토의 파슨산(果汁酸)이 햇볏헤 그은 살결을 표백해서 히게합니다.

오이화장수

오이를 깨끗이 씻처서 그대로 잘게썰어서 수건에 대고 짜서 오이물을내다 이것을 병에너코 거기에 알콜을 백그람을 너코 그리세린 오십그람과 봉사가루 두그람 피 물 한그람쯤 너코 잘흔든다음 한 삼사일동안 두엇다가 노피지(濾過紙)에다 걸러서 씁니다.

미깡화장수

나쓰미깡을 짜가지고 미깡한개에 대해서 알콜오십그람, 그리세린사십그람 봉사가루 두그람의 비례로 섞거 너허서 오이화장수와가티 만들어씁니다.

이밧게 간단히 살결이 그은것을 고치는 방법은 레몬을둥그러케 비여가지고 얼굴에 바르다 그러다음 얼마잇다가 세수를합니다 [illegible]

여름신사양말

유행은 여자들에게만 따려단 여는줄알지만 양말에잇서서만은 남자들에게 당하는수가업습니다 즉 남자들 양말처럼 변화가만혼것은 업습니다. 이제 여름사 려양말을 잡가살펴보면ーー 뭐니뭐니해도 엷을것이야말이제 일인데 이것은보드랍고 땀이나 도 거름로 잘배지안코 신기가 조흔것으로 이것을 때를 다른것은업습니다.

그다음에 혈파 비단을 섞거 짠것인데 여것도 환영됩니다. 그리고 까스는 질기고 청량한 매끈한게 신윤맛이잇다가도 한번빨여노흐면 그다지 신통치못합니다.

요지음은 목이짜르고 우에다 고무를너흔 픽쓰란든것이 유비 행되는데 이것에도 엷은털하고 까스가 잇습니다. 이것은 양말대님이 필요치안코 여름에 시원하기때문에 환영밧습니다. 그

[illegible] 아직까지는 소매에서 [illegible] 의 석가를 향을 나오지안엇습니다.

그다음 [illegible] 대중적으로 그우에 스마ー트한 [illegible] 습니다. 이것이 거옹까지 할것입니다.

빗촉은 대게는 희색, 고 그밧게 고동색이 만흔데 빗싸고 증사치한것은 열 만코 그저 실용적인것은 [illegible] 세이 만습니다 그리고 정제 [illegible] 아단스런 무늬가 [illegible]

그물스카ー트

순수맨든 고기잡이 그물을 [illegible] 에 쳐걸치고 나섯습니다. 어때요? 숙녀의 챙비차림에 신사처노코 밧바할리야잇습니까 조옷습니다。모두들 곳월함니다。 이것은 미국의어느아가씨가 한번이러케맛 부려보앗습니다。이러구서 명사 십리를거니는데 보는사람 마다 눈이 휘둥그래습니다。 그물비 초밤젱이고 속의해수욕복은 연두빗 머리에쓴 「밀집햇」은 검정빗 그맛깃을 생각해봅시다

장편소설

愚氓

朴泰遠 作 / 洪祐伯 畫 【76】

崔主簿의 죽엄(九)

백으로 딸려든 점만 식구를 이 첫주부의 시체에 매여달려 통을 노하 섯게 울때, 건영이 호자만은 그들에게서 좀 떨어진곳에가 탑벽에 등을기대고 앉져 천정우의 엇전한을 우올시하고 엇섯다.

너무나 뜻밧긘 일이엿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업는 일이엿다. 참으로 여러한 맹랑한 일이 어 세상에 다시 잇슬수 잇스랴?

백백교를 며드면, 이제 조흔시절이 올때 부귀와 영화를 제 마음껏 누리게 되리라……이제 수히 조선전도에 지상선경의 대홍수가 여처 백성은 써가안남어도 백백교 신자만은 금경산중 피전중에 몸을 피할 도리가 잇스니라……

이 대게 그러한 허무맹랑한 말이 능히 조부를 속히는 수가 잇섯더란 말이냐? 참말 어처구니가 업는 노릇이다 보성신을 가진어로서야 도저히 밋고 서퍼도 미들수가 업슬 맹랑한 수작ー그 수작에 안악서는 명의로 당시에 이름을 떨치던 조부가 속아 넘어가고 연하여 삼만의 가산을 그대로 그놈들에게 내주엇다니……

물론 이것은 우리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닐께다.

건영은 문득, 을 어월에 서울 갓다가 찻집에서 알게 된 [illegible] 하는 친구에게서 들은 어야기를 생각해내엿다.

그의 서울에서도 백백교를 밋다가 패가망신을 하고 머처서 도라다니는 사나이가 잇다고 하지 안혓나? 모르니 그러치 캐여 알고만 본다면 그놈들의 간악한 수단에 떨어저 비운의 구렁속에 빠진사람이 집안이 혹은 막대한 수효에 오를지도 모른다.

조부는 교의 가른침을 저바리는 자에게는 죽음이 도라오리라 하시고 내게 경계하섯다 그자들은 자기들의 죄악이 탄로될것을 두려워하여 혹은 비밀을 위하여서는 사람의 목숨쯤 앗기를 초개가티 하는지모른게다.

문득 건영의 눈 아페 그들의 허탄한 말에 속아 모든것을 다 교에다 바친 뒤에 마침내는 교의 비밀을 루설하엿다는 명목아래 목숨까지를 빼앗기고 마는 수만은 사람들의 모양이 차레로 떠오르고는 다시 차레로 사라젓다.

저모르게 건영은 몸을 가만히 떨엇다. 무서운 일이다. 두려운일이다.

그러니 그러한것을 생각하므로써 자기집안을 이꼴로 만들어 노흔 백백교에 대하여기어코 복수를 하겟다는 그의 결심은 좀더 구덧다。 외견 적게 는저개인의 원수를 갑는것이요 나아가서는 동포의 재앙을 더는것이라 생각하엿다.

조부의 시체를 둘러싸고자 족들의 슬픔은 끄처엇다。그중에도 누어 옹천이의 우는모양이 애달고 가여웟다.

(조부는,한수가 단명하리라 하엿다. 옹천이를 한수에게시집보내리라는 생각은 아예말다 하엿다. 한수가 단명이라 향상 정감록(鄭鑑錄)과 함께 마의상법(麻衣相法)을 뒤저어리는조부는 의술탑고도 관상도잘 본다는 일커를이엇다.

(그래한수가 단명이라?)

조부의 죽엄을 며나서 잠깐 그래한것을 생각하다가 건영은 문득

(한수가 참여저고잇노)

분주히 방을 나와 사랑으로 가보앗스나 그곳에 한수의 모양을이 미볼수가 업다. 황망히들러 보아도 그의 가방도 눈에 띄지 안는다. 그는 그대로 길로 나갓다. 아까 자기 조부를 뵙고 나오자 직시 집을 나섯다 하더라도 이미 차부의 시간이 지난 뒤엿슬께다.

(어딜, 갓슬까? 집에 잇기가 불안하여 어디 어편에라도 ……?)

그는 큰길 거리에가 우두머니 서서 궁리를 하여 보다가 되는대로 차부를 차저 갓다.

그곳에서 그는 바루 십분가량전에 생김생김과 차림차림이바루 한수인 학생 하나이 달려와서 차 한대를신천읍내까지대절(貸切)하여 라고 갓도라ー하는것을 알엇다.

건영은 멀거니 그곳에가 한참을 서잇섯다.

버짐
음낭습진、무좀、
백납、쇠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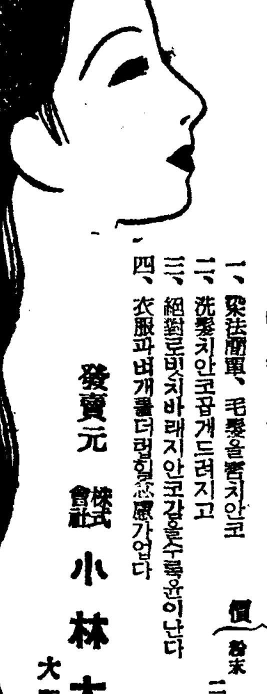
小林 다무시칭키

아모리頑固한 무좀、버짐 음낭습진 皮膚病도 タムシチンキ의强力한深達作用으로 훌륭히殺菌淸掃하고 아품과가려움을곳곳치고 그爽快한治療感이야말로 現代藥化學의자랑이며 本劑獨自의完璧인治療作用의極致입니다

本舖 株式會社 小林大藥房 本社 大阪市京町堀 支社 名古屋·東京

各藥店에잇슴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白毛染 專賣特許 누레쓰바메

흰百合과가튼 純白한白衣에삼단가티숫하고明朗한黑髮이야말로近代 朝鮮婦人의最高美이며ぬれつばめ愛用者만이자랑하는自然美의極致입니다

◎特長
一、染法簡單, 毛髮을害치안코
二、洗髮치안코곱게드러지고
三、絶對로빗치바래지안코갓흔수룩윤이난다
四、衣服과벼개를더럽힐念慮가업다

定價 チューブ入 三十錢 四十錢 粉末 二回分 二十五錢 三十錢

各藥店에잇슴

發賣元 株式會社 小林大藥房 大阪市京町堀

朝鮮古典歌舞大會 七月二日부터 全朝鮮名唱歌舞界 最高權威者總網羅 [illegible] ◇豫告 S·M·C제스트레드團 朝立大公演 國成社 電話光化門 三四九三番

七月八日부터特別大封切 軍用列車 [illegible] ブラウンの千兩役者 支那事變捷戰ニユース 西鄕南洲 優美館 電話光 三九五

松竹キネマ 7月6日10日上映時間表
ニユース		2·33—3·00	6·50—7·17
からくり花形	11·00—12·08	3·05—4·13	7·19—8·27
輝く肉體美	12·13—12·46	4·18—4·50	8·32—9·04
國民の誓	12·50—2·28	4·55—6·38	9·08—10·47
次週豫告 結婚十字路 緋牡丹傳奇 明治座

劇團豪華船公演 七月八日밤부터……上演劇目 故李人稙先生 原作 李雲芳 脚色 『雉岳山』三幕六場 東洋劇場 ◆特別豫告◆ 『아버지는사람이조하』一幕 李瑞鳳作 『眞珠塔』三幕五場 南宮雲作 『두어머니』三幕六場 ◇必乃期待!!

若劇 八月大 ミリオン毎日 光明アリシア 朝交響 夢想ショウ 一曲 [illegible] 6.55 2.55 11.00 / 8.15 4.15 12.20 / 9.00 5.00 1.05 / 9.10 5.10 1.15

本報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三丁目六 電話一一四三番

古翫 (下)

李泰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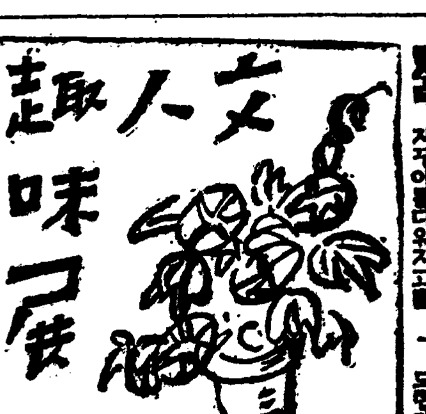
李謫仙은 敬亭山에 올라

衆鳥高飛盡
孤雲獨去閒。
相看兩不厭
只有敬亭山。

이라 읊엇다 새처럼 재재거리던 아이들은 다 자고 안해마저 孤雲처럼 자기寢所로 물러간後、그야 말로 相看兩不厭하여 저와나와한가지로 밤깁는줄모르는것이 이古翫品들이다。

時代가 오랫다 해서만 貴하고 技巧와精力이 들엇다 해서만 貴한것은 못된다

옛물건의 옛물건다운것은 그 옛사람들과 함께 生活한자취를진것임에 그 優雅이잇는것이다。外觀의 工藝品들은 너무 工巧해서 손톱자리나 가는듯 하나만 나더라도 보기 실혀진다。비단옷을 입고 手足이 험한사람처럼 生活의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실혀진다。그러나 우리朝鮮時代의 工藝品들은 워낙이 純朴하게 라고나서 손때나 飮食物에 절을수록 아름다워진다。陶器만 그러치안타。木工品 물건이 그러탕 木物이나 막신、[illegible]、모두 生活속에 드러와 使用者의 손때가무들수록 자꾸 아름다워지고



冊도、요즘 洋本冊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터 더러워 만지고 보기실혀지는 運命 [illegible]은 어느 部分로 손때에 절어야만 表紙도 潤澤해지고 책장도부드러워진다。數日前에 偶然히 [illegible]의 [illegible]을어덧다。四百餘年前인 嘉靖年間의板으로 마침 내가 가장欽仰하는 朝鮮의 大畵家秋史金正喜先生의 보던 冊이다 그의 印章가잇고 그의 手澤으로 全卷에 [illegible] 달리고 군데군데 朱筆이 써여잇다 그 書狀은 워낙難解書로 한줄을 제대로 吟味할수 업지만은 한참 드려다보아야 冊갈피가 떠오르는

[illegible] 장을 만지며 先人들의 [illegible]한 자취를 보는것이나 또 一冊一字를 새서 讀書하기에 세기를 몇몇 번은 [illegible] 를 베서 이 한冊이 되엿슬것인가 생각하면 印刷의 [illegible] 우리들은 [illegible] 마나 [illegible]인지 [illegible] 古翫趣味를 [illegible] 이다 金力으로 [illegible] 체우는것은 [illegible] 이요 또 제힘에 不及하는것을 [illegible] 것도 [illegible] 이다 [illegible] 實心 [illegible] 趣味도 아니 [illegible] 더부러서는 [illegible] 거저하지 안흘것이다。

古紙에무지는말

歷史의흐르는方向

科學的合理性의把握과實踐

李箕永

原始社會를 人類의 蒙昧한少見時代에 비길수잇다면 그뒤의 民族、奴隷、封建社會를 거처온 現社會는 正히 壯年期로 드러간다고 볼수잇지 안흘까 이가튼 比較가 歷史的으로보아서 正鵠을 어들는지 모르나 何如間

二十世紀는 過去의 어느社會보다도 事實이 複雜多端하야 그것은 마치 壯年에 드러선 吾人의 日常生活이 奔走多事한것과 恰히 酷似한바가 업지 안타。

所謂 産業革命以後로 機械의 發明發達은 長足의進步를 加하야 마참내 今日과가튼 大量生産時代를 나타내엿고 다시한편으로 科學의 驚異的 發達은世界의 距離를 非常히 縮少하야 그야말로 咫尺이 千里가티 遠隔햇든 時代를 박구어서 他國을咫尺처럼 交通하는 飛行術이 더욱加速度的으로 速力을 다투면서잇다。

그러나 이와가튼 機械文明은 그自體의 成長으로말미아마 마참내 한편으로 치우친바가업지 안흐니 所謂 現代的物質文明을 跛足文明이라 하거니와 現世紀가 歷史的轉換期에 잇다할도 這間의 消息을 말함인것갓다。

그러면 이劃期的時代를 人類는 어찌해야 가장適宜할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큰問題인만큼 나가튼 사람의 敢히 말할바가못되나 다만時世의 感觸으로 愚見의一端을 끄내여보기로 한다。

나는 먼저 現世紀를 **個**人의 壯年時代에 견주어본일이 잇다。그러면 큰問題를 暫時떠나서 吾人의 個人生活로 드러가보자。

누구나 다알드시 사람은 胎兒가 發育하야 大人이된다。사람이 어렷슬때는 無智해서 오직 衝動的 本能的 感情에만 支配되여 잇스나 그러나 成長함을 따러서 그의 智慧는 차차、事物을 辨別하고、善惡을 判斷할수잇는 人間性을 發揮하지안는가。

그의 智慧는 努力을 하는대로 더욱 琢磨鍛鍊되야 마침내는 偏見과 모든迷妄을 버서나서 公明正大한 人格을 일울수잇는것이다。

世紀의 成長도 個人의 그것과 原理에잇서서는 다르지 안흘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社會가 發展함을 따라서 그의偏向을 校正할수잇는것은 마치 個人의 智覺이透徹하야 知、情、意三者의 統一調和가 所謂 中庸을 得할수잇슴과 가티 안흘까 世紀는 바야흐로 그것을 捕捉하기에 努力하는것갓다。

아담이 禁斷의 智慧果를 따먹은것이 人類의 永遠한 原罪의 不幸인지 아닌지 그것은모른다 그러나 아무래도 人類는 知性과 理性을 떠나서는 向上發展이업슬것갓다 或者는 動物性과 神性의 中間에 끼인것이 人間이 안니냐고말한다 그래서 人間은 動物로떠러질수도 업고 그러타고 神性으로 昇天할수도 업는 永遠히 地上에서 허매면서 발버둥치는 不幸한 存在라고—

未嘗不 世紀의 潮流는 人間社會의 波瀾曲折로 말미아마 混沌、停滯、激流의 轉變無常한 變遷을 거듭하지안는가 십기도하다

그러나 물은 언제든지 아래로 흐른다 그리고 흘러내릴수록 맑아지는것이니 물은 흙을 水中에 떳든 해갈이 河床에 沈澱되기때문이다。

그와가티 人間의 理想은向上發展에 잇다할것이다。그것은 **科**學의 歷史가 證明한다

人類의眞正한 歷史는 科學의 歷史에서 볼수잇다하거니와 事實人類는 흐리지안은 理智로써 科學의 合理性을 把握實踐하는 가운대 그의高邁한 理想을 一步一步實現할수잇슬것이아닌가。그래야만 비로소 人間의 [illegible] 十萬年代로 묵은先祖의 [illegible]에 挾雜物과 가리끼여잇는 化石된 偏見과 모든迷妄에서 脫出할수가잇지안흘까한다。個人의 進步는 [illegible] 反映이라야 할것이다

永晝漫筆 (十一)

靈山의愛護

湖岩

鄭圃隱의詩文이 豪放峻潔하다함은 이미 史評이 잇거니와 先生이 鼎革의際에 善竹橋에서 한번 成仁하자 그詩文도 散佚하게되엿다。李朝에 드러와 先生의忠義가 表彰된後 비로소 그 詩文을 散佚에서 若干蒐集하야 出版함에 이르럿다。그러므로 現存한 圃隱集은 先生詩文의全部가 아니다。詩는 古風까지 幷하야 三百十五首에 지내지못하고 文은 겨우 記疏墓誌祭文等 寥寥數篇이 잇슬뿐이다。

그러나 여기 말하려는것은 그 文이아니오 詩이니 詩는文에比하면 分量이 퍽 만흔셈이나 오히려 빠친것이 업는배 아니다。

내가 일즉 어느友人의 書齋에서 古本圃隱集을 보다가 그 詩中에서『奉次鐵城府院君在永州所著詩韻』이라는 崔瑩將軍에게 次韻한 四律한수를 發見하엿다。

이 古本圃隱集은 正統四年版으로 卽世宗二十一年에 刊行한 圃隱集의 最初版이다。初出版에 너헛던 이 崔都統詩를 어찌하야 그後 出版에는 빠첫는가。이것이 不注意로 빠친것인지 혹은 故意로 뽑바버린것인지 兩端間에 하나이 될것이다。

나의 私測에는 그詩가 崔瑩將軍의 功德을 올흔만큼 崇明熱이 일층 더 노파진 李朝後期에 와서는 一般思想이 그 詩까지도 容納할수업게쯤되여 畢竟 그詩를 削除한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一代偉人의 面貌를 그린 史詩로서의 그것이 圃隱詩의 補闕이될뿐더러 또한 千秋에 傳誦할만하다。

賜玦應時吟澤畔。請纓去歲過淮邊。忠勤定國新開府。淡泊爲家只俸錢。擧義[illegible]川增士氣。成功湖野更人煙。欲知終始心中事。看取皎皎日在天。

生死를 通하야 崔瑩將軍을 올흔詩가 적지아니하나 圃隱의 詩처럼 適實한것은업다。

그 當時에 잇서서는 在野에는 元耘谷의用詩가잇고 在朝에는 權陽村의 讀詩가 잇고 좀뒤저는 卞春亭의絶句가잇고 그뒤에는 李星湖의 下馬院이라는樂府도잇다。

어떠튼 詩中에 오늘날까지 흘러 世人의입에 오르내리기는 元耘谷의 用詩가 아니면 卞春亭의 讀詩뿐이므로 이圃隱의 이史詩에 이르러는 全然히 忘却되엿던것이다。

一代史家인 安順庵도 東史綱目을 著述할때 崔瑩傳에 崔瑩을 爲하야 春亭의絶句를 引用하면서 圃隱의 이 四律을 빠친것을보면 아마 順庵의 博學으로도 이詩를알지못하던模樣이다。

圃隱의 崔瑩將軍을 올흔 詩는 그의큰功德뿐이아니라 그의 日月가티光明한 平生心事를 推稱하엿스니 이것이 圃隱의 말인만큼 價値가잇다하겟다。

松都雜記 섭섭한古蹟 (二)

蔡萬植

서울서 京義線에 몸을 실고 한동안 달리다가 長湍을 언뜻지나고나면 게서부터 車窓 밧그로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農園의 낫 선 風景에 우선 松都를 몸 바루 느끼게 한다。이윽고 車가 開城驛에 거진당도할 무렵이면 線路 가까히 밧두덕으로 或은 논가운데 우뚝우뚝、그中에는 버스듬히 쓸어저 가기도하고 또 어는것은 아주 누엇기도한 빗돌들을 어 古色을 가득히 드리워 보는이로 하여곰 일찌거니 본적이업는 松都에、그 빗돌마다 한까저 간곳마다—아니— 바다이 오롯、지흥古色이 깃들어잇는 옛都邑이거니 마침내 어러케까지 想像을 [illegible] 돌게 하게한다。

다른 사람은 어떠한지 모르겟서도 나만은 그러해서 어는때고 開城驛을 無心한 가운데지나치던 못해와섯다。

그러다가 드디어 내발로 松都 바닥을 처음 밟어본 結果는 크게 失望을 하지안치 못햇다。

驛에서부터 都心을 向해가도 아무리 가도、左右로 보이너니 新開地처럼 殺風景스런店舖가 놀비할뿐 어느구석 한모퉁이에고 이렇다는 날근雜閣하나를 눈에 떠여주지 안는다。

이러고서야 沙里院이니 大邱니 咸興이니 그런 新興都市와 달리 高麗의 王都랄게어디잇는고 저윽히 慶賀하면서— 엇섯다。

그래도 古蹟잇서 더듬어 가는니까 겨우겨우 남은 城門하나가 東西와 南北으로交叉되는商街 한복판에서 가만히 서서잇다。반갑다고 해야할지 어이가 업다고 해야할지 아무런 어쩌이 南大門이다。

그리고는 예서부터 南쪽길을 얼마를 가야 그저 상고관 北쪽 길을 얼마를 가야 亦是 상고관 또 東쪽 길을 갓쓸 고가야 겨기도 가긍쓸고관!

案內者 업시 나선것이니 잘못이겟지만 나는그만 파기소징이 나서 古蹟찾기를 우선 斷念하고 발길을 도르켜면서 古都라더니 古蹟은 하나도업고 맨판 장사들만하고잇다고 어림에 웅처가르두 주울 혼자 중얼거렷다。

그뒤 훨신 지나서야 여러 차례를 두고 친구의引導로或은 單身이곳저곳 古蹟과 勝地를 낫낫치 차저보앗다。

무엇보다도 松都의 代名詞라고 할만한 善竹橋와 滿月臺、善竹橋는 遺物 그自體는 圃隱의 忠節이 아니더면 그대두쪽 대단한 建造物은 아니고 차라리 처븜 그언저리로 가다 늘어선 능수버들이 맨먼저 봄을바든 눈이 밝혀 떠 이게 푸르러 잇는것이 오히려 賞嘆만했섯다。

滿月臺도、그때 한참 가을이엇고 달이 마침 또 滿月인데 도한바와가티 옛臺의 문허진 주추들로 더부려서 풀숙에 비내리듯 울어자지는 버레소리가 아닌게아니라 絶妙의 詩境이라 할수 잇섯다。

그리고 開城附近은 朴淵을 비롯하야 彩霞洞이며 扶山洞 [illegible]이며 모두 그러저한 風景을 간추고잇섯다。

이러케 두루 보고나서야 最初 아무것도 아니라고했던 나의 松都에對한 認識이 비로소 是正이 되기는했섯다。

그러나 그때도 보기前에 다보듬엇던 想像과 企待는 永遠히 채우지못하고 마랏다。

그럼한中에도 麗朝時代의 文物을 자랑할만한 藝術的 建造物이 그럼직한게 업서서 더욱섭섭햇다。高麗磁器는 갓서 업는배 아니지만 그거야 松都에서가 아니라도 볼수잇는것이다。

그것이 엇스므로해서 松都를 [illegible] 남은 歷史의 餘韻에 흥건 스미게하는 그것… 가령 慶州로 치면 石窟庵이 [illegible] 石窟庵이며 雁鴨池 鮑石亭 어떤 것들이 다 [illegible] 高麗 [illegible]의 國都이던 松都의 文物의 자취가 어데지도 업슬 [illegible] 하물며 新羅의 千餘年에比하면 高麗는 한지아니제겨우 五百年밧에 안되는 歲月 [illegible]。

그것을 닭지 高麗가 新羅時代보다 文物에 만히 遜色이 잇섯다는것으로만 돌리야 할는지 어찌는지 正히 그러라면 누구를 탓할일도 아니겟지만。

[illegible]의藝術競戰

第一回全朝鮮男女音樂콩클

一開催期日……九月中旬……申請期日……九月五日

一曲　目……二曲을演奏하되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一曲은隨意로함

【聲　樂】(1) Der Wanderer(放浪者)=슈벨트 (2) Ave Maria(아베·마리아)=슈벨트

【피아노】Impromptu(卽興曲) No. 4(作曲九〇)=슈벨트

【바이올린】Concerto(協奏曲) No. 6 (B Flat) 1樂章=[illegible]

【發　表】本社事業部에서直接로發布함

一參加資格……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一申請規定……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한번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一褒　賞……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콩클賞을授與함

一審査委員……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小品) 幻想記 (四)

李基榮

003123

이것은 벌서 六年前五月일이다。그해八月에 나는 이곳을떠나 東京行을하야 學窓에서 工夫도하고 複雜한社會의 시달림을 밧기도하다가 六年後인 오늘다시 그립든此下로 도라와 도다시 그곳을 다니게 되엿다。

近日에 도라오지며칠안되므로 오래못맛난 先輩와 옛친구들을 尋訪하느라고 낫이면 大都市內를 지나게되고 自然밤늦게 도라오게된다。밤늣게 亦是 그廢道橫斷路를 건느라면 六年前일이나 季節이 가을때이라 그일이 엇그제가튼 記憶에새롭다。記憶은새로우나 벌서六年이란 긴歲月이 지나갓스니 아무리 그때와가티 山川의 變함이업고 廢道아래 풀이茂盛하엿스나 그는까마케 먼옛일이다。따라서그 夢園의 主人公은 이미白骨된지 오랠것이다。그때나는 이러케 손꼽아 헤아려지고 밤늣게 그곳을지나려면 그白骨을想像하기에 努力한다。왜냐하면 엇그제가티 새로워지는 그凶凶한記憶을 번예날로스스로誘導시켜 恐怖를 늣기지안토록하는까닭이다。

그러나 이努力으로 因하야 그곳에 허—연사람센것은 보이지안코 그대신 奇怪한骸骨에 도시달림을받고잇다。

어떤때는 汽車가 바로지나간듯 白骨노는 音響이 들리고 더 허여진 白骨들이 서로맛부디처서 뼈그락 뼈그락 奇怪한 音響이 들린다 이소리가 들릴때에 나는 다시 몸서리를 치고 그언덕아래를 한참식서서보는때가 잇다。恐怖를 늣기면서 한참식서서 보는동안에는 그奇怪한白骨노는音響은끈허지고 마디마디의白骨이 제꺽제꺽드러마처저서 어느解剖學敎室에서본 人體의骨格標本과가튼것이 어저거리다니는것이 보인다 그러나 仔細하게살핀結果 그白骨노는 奇怪한音響은 곳汽車가지나간다음 『레—일』의 震動으로생기는 餘響이란것을알게되엿다 그러나 어쩌대고 그附近을통

寶物만흔寶林寺

(長)(興)(篇) (三)

宋錫夏

迦智山 寶林寺는 長興邑에서 北으로 約卅里가면 松亭이란 面事務所와 警官駐在所가잇는 有治面의 酒幕거리가잇고 거기에서 다시約十里를 田田한山峽길을 北으로 가면서 玉가튼 石川을 두서너차례 건느면 迦智山밋 편편한 한 局面에 반듯반듯하게 자리잡고잇다。이寺刹은 新羅憲安王時(西一八五九年頃)에 元表禪師가 開基한것으로 絶妙한 稀罕한 傳說이잇는데 그것은 元表禪師가 天下三寶林의 하나를 차저서 迦智山까지오니 [illegible]할만한데는 기리를 헤아리지못할만한 큰 못(池)이잇고 그에는 龍이잇서 妨害를하엿다。疑訝한 表德은 할일업시 못가의 나무가지에 신을걸고 그길로 天竺가서 海東을 바라보니 天쪽寶林에 瑞雲이 서리엇스므로 即時도라와서 道術로서 附近民의눈을 보이지안케한後 곳 宣傳하기로 못에 숫과돌(炭·石)한個式 집어너허면 병이낫는다고하니 萬人이 모다 한個式의 돌을 집어너허 一朝에 절터가되므로 龍은잇슬수업서 怒하야 내려오다가 龍門의(地名) 石壁을 부수고 괴를 헐리면서 血路로 너머갓다고한다。

또는 [illegible]에 梅花라는神龍이잇서 힘을썻다고도하며 이는 梅花菩薩의 化身으로 그 [illegible]의 紀念의 壇을 거것스나 이제도잇는 梅花菩薩閣이 그의 紀念閣이다。그後景文王때에는 新羅의 大德 普照禪師가 現在 國寶로 指定된 毘盧遮那佛을 鑄造하야 荒宇를改築하고잇섯다 그의新築된寺와碑는 아즉도尙存하며 더군다나 碑는 그의弟子 兵部侍郎金彦卿이 第七行禪字前까지 쓰고 남아지는 金薳가 쓴것으로 이 方面의 大家黃鼈敎氏가 晉體의 티괴칼한 書法이라고激讚을 마지안는 珍品이다。碑는 總高四、二六米 碑身高二、六八米 幅一、三一五米 厚一、三七五米 座蓋龜首高一、二六米되는것으로 龜首와龍首는 精巧한 彫刻을하고 碑身은 水成岩質의 藥鞘品이며 가장 奇異한 일은千餘年이나 지난오늘날도 아즉字劃이 明晰한것이다。

寶林寺에는 國寶又는 國寶級의 寶物이 대단히만타하여 東浮屠七座 西浮屠二座 三層石塔二座 石燈一座 前述한普照禪師의 塔과碑 本尊을모신 大雄殿 아래法堂이잇는 毘盧遮那佛 四天王四坐(木刻) 金剛力士二座 羅漢十六座 香木長生標柱等 百花燎亂의 感이尤甚하며 이러한 現象은東都慶州外에는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國寶 毘盧遮那佛은 아메말하바와가티 普照禪師時代의鑄造佛로 坐高二、三〇米 坐廣二、一一米 坐幅一、二七米로서 雄渾한 얼굴은 당장에 무슨 말어라도 할것갓고 優雅한 衣襞은 바람만 불면 불릴듯하다。亦是 國寶 大雄殿은 寺中書記에 依하면 그 間數次 重建은 거듭하엿슬망정 均齊잇고 雄大한 맛은 조차 [illegible]럼 類例가 업슬것이며 國寶 三層石塔은 하나는 高五、七〇米 하나는 五、五九米로써 端雅한 典型이나 嶄新한 構想은 兩塔中間의 石燈도 또한가튼말로서 表現하겟다。國寶 東浮屠七座(그中 一坐만 指定되엿음)는 迦智山 寶林寺를 찾는이가 最後의 淸澄한石溪를 건너서 山모퉁이를돌아올라서면 아침暘에도조코 夕照에도 조흔位置로 大竹사이로 隱見해보일만치 建立하여 그配置에 俗됨이업고 拘束됨이업시 自由롭게 제각금精美를자랑하는듯이 오목오목서서잇다。그리고 그構造美亦是 莊麗한것 雅淡한것 淸秀한것 奇絶한것 別別것이잇서 夏目漱石이 倫敦에서 이러킨것과가트며 로맨틱한 英國에 사로잡히어 몸은 비록 이제잇스나 꿈은千年을오라가라하엿다。이들 天然花崗石 石質로 形容만을 몰만한것 淨影과 嘆賞할것 [illegible]을 놓넘것이만라。

西浮屠는 寶林寺에서 西便으로 約三二千石川을 左手로 안고 곳게뻐처가면 조으는듯 한 山家의뒤에서로對하고잇스며 工手法은 東浮屠明으로 準用할것이다。(寶林寺條未完)

(寶林寺三層石塔及石燈)

漢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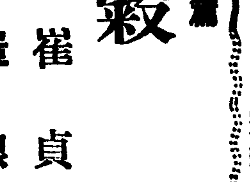
題蓮花 押春

桐岡考賢

佳作之二

明川郡東面寶岩洞 漁雷 全澤龍

淸蘂繁英不染塵。瑞蓮太乙降眞人。
百般香譜惟居甲。七月林塘獨擅春。
既占淵湖鋪廣絁。肯同桃李結比隣。
濂溪昔日最鍾愛。取此嬋妍文質彬。



女流短篇 穀象 (二)

崔貞熙 作　崔根培 畵

그러타고 문수를 인표와가티 미워할수는 업섯다 오히려 남편에게대한 절망과 증오가 크면 클수록 아들에게 가는 애정은 더 지극해갈뿐이엿다 남이가 인표로해서 이러나는 울화를 문수에게 하는것도 이런 정비례(正比例)적 작용에서 생기는 결과일것이다 달빗아래에 보이는 문수의처참한—인표와 똑가튼 몰골을 발견하자 남이는뜻『요 배랑뱅이 씨알머리야 제법좀 그 꼴아지 뵈지말어다오』하고 디뻿다 호려갈기고 시픈것을 꾹 눌느고 남이는 댑사리우에서 거더들고온 적삼을 대리기 시작햇다 갓득이나 와를 와를 떨리든 몸이 더떨려서 대림이가 작구만 빗나갓다 문수는 점점더 심상치못한 어머니가 무서워서 대림을노앗다 몰엇다하는 번번히 오롯것을 놀래며 어떻이를 땅에못부치고 대각들고 안진채 남이의 눈치만 힐끗힐끗 건너다보는것이엿다

『배라먹을 씨알머리야 그꼴아지 좀 못고치겟나』

문수는 대림질을 잘못잡어서 그러는줄만알고 더한층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적삼깃고대쪽을 손등을 밧어서 꼭잡고의로 조금 치켜들엇다。

『아유 아유 저눈깔 좀 보게나』

남이는 여떼 노엿던 게뭇던 몽둥이를 저도 모르는겨에 들고 닥치는대로 건너다 후려갈겻다。

문수는 영문모를 매가 아프기도 하려니와 너무 무서워서 매가 닷는족족 저은 두손으로 막으며 바들 바들 떨엇다 남이는 이러는 문수에게 너이들 배랑뱅이때메 이고생을 한다는둥 너까지 그모양이니 이년의 신셀 엇지라는둥 속굴거려서 속이 난다구 찌 그리 신흥히 닭어먹어는냐는둥 사내던 못된년이 자식되겟느냐는둥 애여 꼴아지가 흘려으니 너 두가서 비러먹으라는둥 무슨죄루 납가지구 못살게구 노냐는둥 이런 두서도업는 신연절을 려노흐며 억개쭘 대가리 아랫두리 할것업시 함부로 때렷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한 태도라고 할수업스리만큼 지독한매질이엿다。남이가 인표에게 실망(失望)을 느끼면서부터 인표에게 대한 분푸리를 문수에게 한다는것은 알고잇는 일이지만 이러케 심해본적은 업섯다。언제가 빨마구지에 매질의 손자죽이 어롱 어롱 남어잇슬적도 잇섯지만 그것이 회돼서 그뒤로는 한번도 그러지 안햇고 간혹 인표가 보는데서 일부러 때리는것처럼한것 리하는일밧게업섯스나 오늘더 무 흥분이 지나처서 아무것도보이지 안햇다。오직초라한 꼴을 한 인표의 모양만이 눈아페나 타낫다。

『어머이 어머이 안그래 안그랜』

잘못한것도 업시 안그러다고 하는 문수의 부르짓는소리도 남이는 드를수가 업섯다。밤은 기퍼서 마당에 달빗도 기우러지고 안방 쥐인집에서들도 곤한 잠속에 든모양으로 각금 낑낑거리든 어린애소리도 들리지안엇다。

그거두모자의 때리는소리 맛는소리만이 기픈밤 한울 위까지 미치는듯햇다。

문수는 아버지가 도라오두어 머니가 전각지안코 각금 화를 버력 벌역 잘내고 종종 때리기도하며 언젠가 남의바느질해논걸 아버지가 훔처 갓슬때도 제잘못이 엄건만 학교도 못가게하고 한둔종일 흉두깨를 못 재피고 대동일하면서 어머니가 [illegible]지만、오늘밤처럼 무섭게 마저 신어집 한든 일도 잇기는 햇 [illegible]보임은업섯다。

문수는 마즈면서 생각햇다、와가리 자기어머니는 계모인가부다구。그래서 갈급 자기는 『산드룽의유리구두』란 이애기를 지난번 주일 갓든시간에 들은 일을 생각하고 꾸중도 듯는가부다구 이러케 생각하고보니 정말그럿것도 갓맛다。깟딱하면 어머니는 배랑뱅이 씨알머리라는둥 꼴아지가 보기실타는둥하는것은 틀재로 상태나 유덴이나 경원인 생전 어머 맛는일이 잇슬것갓잔코 아무리 오래노라도 거저못는 일이 숙하고 학교를 파하면 운동장에서 아무리 오래 노라도 걱정듯는 일이 업고 두른고기와 계란반찬에 나는 그렛보지못한것은 고사하구 학교를 파하면 이내 달려와서 빨이나케 남의옷을 가리입고 어머니를 도와야하지안는가? 나는 작난감 한번가저보지 못햇다。그러케그러케 밤낫 어머니 꾸중만하는것이아니가。

문수는 이러케 한번도 생각해본일이업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꼭 이애기속의 산드룽이와가티 불상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정말 어머니는 어디 잇슬가하는것까지 생각해보앗다

新刊紹介

◆佛敎時報 第三十六號 發行所 京城府壽松町五의二七 佛敎時報社 振替京城三三八四三番 定價 一部十錢

◆月刊大衆 七月號 發行所 東京市 京橋區銀座西八丁目九 日本圖書出版社 振替東京三三六五〇番 定價三十五錢 送料九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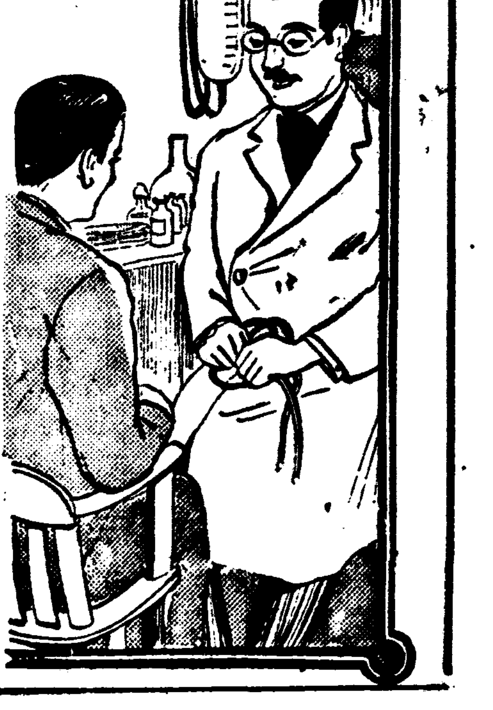
◆[illegible]朝鮮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三丁目七의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九番 定價二十錢

◆專賣の朝鮮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水標町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 定價三十五錢

◆輓歌 尹崑崗詩集 發行所 京城府貫鐵町 東光堂書店 振替京城 一六一二二番 定價二圓 送料十二錢

◆朝鮮水産時報 第八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朝鮮水産會 振替京城八二二八番 定價十錢

紙上醫學



梅毒에効力이有名한家庭療法

問 저는 數年前에 梅毒에걸려서 그때에 여러가지 方法으로 治療를한結果 外部로 나타나는 病勢는 업기에 完全히根治된줄로 알고 잇섯더니 其後로는 항상몸이 前만못하던中 近年에는 머리가무겁고 아프고 全身에活力이업고 밤이면잠도잘못자고 마치梅毒으로하야 神經衰弱에걸린것도갓고 全身에부스럼이 생기고 惡性여드름이 생김니다 그러니 그대로내버려두면 自然히 나을것이겟슴니까? 어떠케하면조켓슴니까?

答 당신은惡性梅毒이잠복된것을처음에治療法을잘못하고 病증세가表面으로나타나지 안는다고내버려둔탓으로 그와가티惡化하야慢性梅毒이된줄압니다 梅毒은처음에治療를잘못하면 病은속으로기피기피잠복되엿다가 二年、三年後或은五年이나十年後에별안간에 무서운腦溢血症이생겨서生命을빼기거나 머리가나빠저서 병신가되거나합니다

당신은아즉이와가티重하게되든안햇스니根治시킬可能性이充分히 잇슴니다 즉 부시럼이나여드름이나는것이나 毛髮이빠지거나頭痛이심하야神經衰弱에걸린것가티 무슨일이던지조금만하면실증이나는까닭이니 한번信用잇는醫師에 게診察하고血液檢査의結果、梅毒이血液이나淋巴液에混入되여잇고 疲困해지는때가만흔것은梅毒인줄알거든 하로바삐徹底히治療하기바랍니다

治療法으로는 專門醫師의 治療를 밧는것과 家庭에서 治療하자면『베루쓰丸』을 服用하는것이 第一効果的입니다

問 저는 父母의 梅毒이 遺傳되엿는지 二年前부터 얼굴에 이생스런부시럼이 생겨서 남의압헤가기도 북그럽고머리털이 빠지고 全身에 活氣가 업시무겁고 머리가무겁고 이상스럽기에 病院에 가서 診察해보앗더니 遺傳梅毒이라고 하기에 醫師의 말삼대로 注射를맛고나서 血液檢査를 한結果、病은 陽性에서 陰性이되엿다고하기에 나은것으로알고 잇섯슴니다 그러데도 불고하고 氣分이 조와지지를안흐니 여기에 조혼治療法은업겟슴니가?

答 당신에게 特히말삼드리고자하는것은 당신의梅毒은 胎中에서 父母의梅毒이遺傳된것이므로 오래동안 體內에 잠복되여 成長한것이니만큼 相當히 惡性이되엿슬것이오 또한 그동안 注射나 其他여러가지方法으로 治療를 해왓슬것이므로 梅毒菌은 지금까지 써오든注射나 藥品에對하야 相當한 抵抗力이 생겨잇슬것입니다 萬一 그러타면 只今까지해온 同一療法으로는 效果가 減少되엿슬것이므로 治療法과 方面이 다른 內服藥으로 全身療法을하시면 훌융한 效果를 볼수잇습니다 그러나 內服藥이라고하드래도 近日에는 여러가지 種類가 잇스므로 藥을 求하실때는 첫재信用잇고 有名한藥을求하시지 안흐면 안됨니다 이런點으로보아서 당신이安心하고 服用할수잇는藥은 東京鈴木日本製藥社에서맨드는 梅毒內服藥베루쓰丸이 藥効와信用이特히有名합니다 이藥은 梅毒家庭療法藥으로가장理想的이고 安心하고 服用할수잇습니다

注射로낫지안는 梅毒이라도家庭에서 곳칠수잇는內服藥

注射療法이면 梅毒은勿論根治되는것갓치알고잇는사람들이만흐나 실상은여러분게서생각하시는바와가티 容易하지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注射를해도낫지안커나 再發하는實例가허다합니다 또한一般的으로 이약을쓰지못하는 原因은 一一히病院에 가야하고 治療費가너무過多히걸이고 村에는 病院이完備하지못한關係가만습니다

梅毒은 그대로내버려두면 점점더하고 하로가는조면는줄수록 곳치기어려우니 여러분가운대遺傳梅毒이나 花柳界에서 傳染된 梅毒으로 苦痛을當하는분은 하로밧비內服藥베루쓰丸을 服用하시기바랍니다 베루쓰丸은 藥價가싸고 效果가良好한內服藥이라고 世上사람에게칭찬을밧고 이 니다。

藥은 服用後에副作用이絶對로업고 血液과淋巴液을淨化시킴으로 毒이 大小便으로 體外에全部排出되므로 氣分이상쾌하고 食慾이늘고 神經衰弱에걸린것가티 머리가아프고무거운것도 또한記憶力이나思考力等이減退도 이藥을繼續하야 服用하는동안에 날로조와저서 梅毒을根治할수잇고 自然健康을回復할수잇습니다。

이藥은 各地有名藥店에서도販賣하지만 萬一品切되엿슬때는 반드시 本舖로註文하시기바랍니다 本舖에서는 先金註文하시는분에게는 送料를부담해드리고 代金引換註文에는 送料四十七錢을藥價에加算하오니 될수잇는대로先金註文하시는것이 便利할줄압니다

男女의梅毒 便秘와皮膚病에

ベルツ丸 (베루쓰)

鈴木ベルツ丸 SUZUKI NIPPON-SEIYAKUSHA

(主効) 梅毒、胎毒、淋毒、橫痃、濕疹、冷毒、痔疾、腦梅毒、遺傳梅毒、류-마치스、痛疾、皮膚病、여드름、動脈硬化症、便秘性

(價藥) 二十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七十五日分 十圓 百六十日分 二十圓 二百六十日分(家庭用) 三十圓 送料 內地 各十五錢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淸二

振替東京四五番·電話浪花八十番·九十番

全國有名藥店 [illegible]藥品部에잇슴

營農의基礎인 作物品種의改良 ①

作物의品種이란무엇인가

産業茶談

(一) 作物의 品種이란 如何한것인가

作物에는 米、稻、大麥、大豆、粟、黍、甘藷、大根、胡瓜、棉等만흔種類가잇는데 同一種類의 作物中에도 또 實用的性質이 相異한것이多數이다 例를들면 水稻中에는 일직 成熟하야 일직秋收하는것과 늣게야 成熟하는것 一株에서 收穫하는量이 比較的적은것과 其

反當으로 一株에서 나오는量이 만흔것或은 또요 粟가 크고적은것等實로 枚擧할수업을만치多種이잇다。麥、大豆、大根等에도 全혀이와同樣의것을 볼수잇는것이다。如斯히 一種類中에 形狀과性質이 相異한것이 多數이므로 우리는 此等을 品種이라고하야 區別하는것이다 今日 普通栽培하고잇는 主要農産物에는모두 數十數百의品種이잇는데 이것은 아조 興味를 도두기爲하야 品種名을붙처 區別하고잇는것이아니라 實際에必要하야 區別하는것이다 即品種의區別은 農業을經營하는者에게는 가장重要하고 實用的이며 또經濟的인作物의 形狀과性質의差異를나타내고잇다

어제이것을 [illegible] 例를들면 水田의裏作에 [illegible] 또는「하야리베지」를 栽培하야 好成績을내려고하면 前作의水稻는 成熟期가빠른것이아니면 아니된다 또는 麥을多收하야 裏作收入을多하려고하면 麥의質이 良好하고 [illegible] 品種을選擇하야 [illegible]다 田作에잇서서는 麥의間作으로서 棉과甘藷를栽培하려고하면 麥의品種은 早熟하는것이 [illegible]

그런데 이러한것을조금도考慮치 안코 作物을栽培하면 其農業經營은 반듯이 大失敗를할것이므로 品種의選擇이 重要한것은 이에依하야 알수잇다

旣述한水田의裏作을 行하기爲하야 成熟期가빠른 水稻가必要하며 麥間作에棉과甘藷를 作付하기爲하야 短稈早熟하는麥이必要하게되여 水稻一作하는 境遇或은棉을 麥의間作으로하지안는 境遇는 水稻及麥의品種은 晩生種이나 早生種或은 또草丈이 [illegible]

[illegible]나나즈다 [illegible]하면農業이 一步나아가 [illegible]고多角化하는데따라서 作物의品種도多種多樣인것을使用하게된다 今日은作物의品種은 [illegible] 날에도 現今과가티 多數한品種이잇는것은 決코아니고 人智가 進步되고 農業이發達함에따라서 增加한것이라고생각된다

그러면 어찌하야 어거릉多數한品種이되엿는가하는것은 [illegible]하게說明하기는困難하나 世界中어데를가든지 人間이가장主要하게栽培하고잇는作物처럼 其品種數가만흔것은 事實이다 例를들면 日本에잇서서는 稻가가장主要한作物이므로 其品種도 가장多數이다 亞米利加合衆國에서는小麥 玉蜀黍 棉이重要作物이므로 其品種數도 我國에比할수업슬만치多數이다 또도마도는 今日重要한作物이되엿는데 이것은作物로서 人間이栽培하기시작한 時日이 比較的짧브나 널리이것을 즐겨먹으므로 近代의 重要作物이되여 品種數도 急激하게增加

하엿다 [illegible] 比較하여보면 作物의 [illegible]이라고하는것은보다 永世不變의것이아니고 年月이經過하는데따라서 自然히變하는것이다 即生物은 어느 [illegible]하는形狀과 性質은 永久不變의것이아니고 自然히變異物을生하는 性質即 變異性이잇다 그리고 어떠한性質이 子孫에게 傳하여 漸次生物의 種類或은作物의品種數가만하여진다 如斯한것은 其作物을널리栽培하면할수록 發現할機會도만코 또사람이그作物을重要하게 栽培하면할수록 發見할機會를 [illegible] 된것은最初는겨우一個에不過하나 우리가이것을重要하게增殖하므로 그子孫은 益益만허저서 드디어 一品種이되는것이다 故로今日과가티 學問이進步되지못한옛날에잇서서도 生物(植物、作物)은스스로 自然히變한다는 性質이잇고 우리가栽培하야 選擇하는것만도 漸次새品種이增加하야 今日과가티 多數를보게된것이다 (계속)

産業

營養價値豊富한 松茸의栽培法

赤松이잇는山林이면 어데나可能하다

가을味覺의 王座는松茸일것이다 其風味와營養價値야말로 松茸의生命이라고하지안흘수 업다 松茸는 朝鮮各地어데나 赤松이 잇는곳이면 天然으로 發生하는 것을볼수잇다 特히朝鮮産은 多少일직나온다는것은 商品으로서 有利한立場에잇다고본다 이松茸는赤松根에 寄生하는菌根에依하야生하는活物寄生菌이다 其栽培에잇서서는 赤松의 細根이存在하여야하는것이 絕對로必要하다 이것을 栽培함에는 胞子或은菌絲를播種하여야하는데 胞子를採集함에는七八分가량 開傘한松茸를 數日間靜置하면 無數한胞子가褐狀을呈하야 落下하는것을볼수잇다 이것을 播種用胞子水가 되며 또는모래(砂)를두고 松茸를심어두면 胞子는砂中에 落下하는데松茸를 다른데 移植하고 砂를攪拌하면 濃厚한胞子를 含한 播種用砂가된다

菌絲를 採集함에는 松茸가잘 發生하는곳을 選擇하야 表土를 업시하고 地中에蔓延하는 白色菌絲를取하야 陽光에비치지안토록 水中에서 菌絲汁을만든다 이가티調製한 胞子汁又는 菌子汁을 落葉을除去하고 赤松의 鬚根이뻗는곳이잇는곳에 이것을傷하지안토록 뿌리고落葉을 덥퍼두면조타 이러캐하면二、三年되는가을부터 其發生을 보게되는데 播種後의山의管理에는 極力留意하여야한다

江原道의鰯魚 漁獲高激減

但悲觀할必要는업다

江原、慶北道의 鰯漁는이미 六月부터 開始되엿는데 江原道로부터의 報告에依하면 沖合七十浬가량까지는 水溫이야더鰯群의 來游에 適當치안흐므로魚群은 멀리沖合을 逆游하야 六月末現在의 鰯水揚高累計는 三十二萬一千百十六樽에 不過하야 昨年同期水揚高에 比하면 二十四萬四千五百樽의 激減을示하고 엇다 더욱이 注文津以北의 十九萬七千樽의 激減은 六月二十日以後鰯魚로因하야 漁網을 破損한것이 相當한數에達한까닭이다 六月中의 海溫低下에 依하야 不漁로 本年의 鰯漁에對하야 相當히 不安을가지고잇는 便도잇스나 總督府水産課에서는 이現象은 그리悲觀할것이아니고 鰯漁의 盛漁는 八月부터이므로 其成績如何는 今後의 漁群來游狀態에잇서 海溫低下도 北으로 進行하는데따라서 相當한 變化를 볼것이라한다 또本年의 鰯巾着網은 咸南以南八十統 咸北百十九統(新規許可二十一統)이라한다

楊州小麥共販

【楊州】楊州郡農會에서는 小麥의 共同販賣를다음날자에 開始한다는바 中間商人의 奸計에빠지지말고 絕對有利한 共同販賣에 賣却함이 正確한等級에 만흔돈을 살수잇스며 代金即時支拂을 便宜를斡旋하야준다는바出荷上注意는다음과갓다

一、乾燥調製를 完全히하야 穀物檢査所의 檢査에合格될것

一、脫穀할때는 먼저올깔고 돌의 混入을防止하고 風選으로 不完全物을 除去할것

一、收穫한小麥은 晴天에 二日以上乾燥하야變質되지안케할일

一、包裝用叺는 四斗入可量의叺을 使用하야 穀物綑綁을使用하야 完全히包裝出荷할것

一、販賣準備가다될時는 農會에서 便宜를 斡旋하기로되엿다

議政府七月十三日부터八月十八日까지

德亭七月十二日부터八月十二日까지

東豆川七月十日부터八月十五日까지

金谷 七月十四日부 七月二十九日까지

磨石 七月十四日부터 八月四日

魚油의買受價 石鹸逆算法不當

魚油購買會社의 魚油買受價의基準을 何處에 置할것이냐 하는 것은魚油의 基本契約改訂과 共히確立하여야할 問題로서 過般의油脂聯과 購買會社와의 懇談會에서도 議論되엿는데 石鹸生産品으로부터 逆算하는 方法이 理論的으로가장適當하다고하나硬化油의 使途로서는 石鹸以外에 리스링其他諸種油脂製品이잇고또 輸出採算價도 考慮할必要가 잇스므로 石鹸逆算法을 반드시萬全이라고는할수업다 何如튼 魚油의價格에 너무伸縮性을 두는것은朝鮮의 鰯工業의 基礎를破[illegible]

江陵秋蠶掃立樂觀

【江陵】江陵郡에잇서서의 秋蠶掃立은 八月十日頃으로 될려인바 同中旬頃에서 二十日頃에 까지될 秋蠶掃立은 지금(昨今) 三圓五十錢가대서는 곳(그때)의(四圓臺)를 突破할 形勢로서 자못 樂觀되고잇스나 그러지안허도 自家消費的見地에서 相當히 엇스리라고 보인다

軍用馬糧 大麥共販

【舍人】軍用馬糧에 供할 大麥買入은 今月中으로 郡內各面에서 共販으로 充當케되엿다는바 其中舍人面의 一百二十石은 來十日부터 二十日까지에 實施하리라고한다

工業質疑

銅鍍金의方法

알미니움과알마이트加工品

【問】알미니움 또는알마이트加工品에銅鍍金을하고싶흔데 可能한지其方法을 開示하여주시요

【答】알미니움에 銅鍍金을 行하려면 처음에는 亞鉛鍍金을하고 其後에銅鍍金을하면 其目的을 達할수잇습니다

◇亞鉛鍍金

鹽化암모니움十六온스를 水一가론에 溶解하야 普通鍍金과同樣으로 液槽에浸潰하고 基本板은 亞鉛板을使用한다 陰極은可及的短時間으로 洗滌하야 四、五時間두면 基本板에서 亞鉛이充分히 溶解하므로 이 液을 使用하야 目用物의 鍍金을行한다

鍍着은 검으스레해지는 이것을 硫酸마네지움液의 一가론에 對하야 一온스를 加하면 洗淨을 널수가잇다 溫度는華氏八十度 電流密度는一平方尺에 對하야 一、五―二、〇암페아

◇銅鍍金

一、靑化銅三온스半 靑酸加里四온스半 炭酸曹達三十二分一온스 一가론

二、炭酸銅五온스 靑酸加里十온스 次亞硫酸曹達三十二分一온스 一가론

以上 모두華氏一〇〇度―一〇〇度로使用하고 陰極電流密度는 一平方尺에對하야 四―五암페아

三、硫酸銅廿八온스 硫酸三―五온스 水一가론

右는華氏 七十五度 電流密度는 一平方尺에對하야 十―十五암페아

알마이트는絕緣性皮膜이므로 그우에鍍金할수는업다

녀 마

(問) 녀마를 直接 輸出하려고 하는데 大阪에잇는 取扱所

(答) 大阪南區[illegible]町二ノ三 古山商店 同區南區町二ノ二 乾商店 同區高津五番町四 濱浦政吉商店 同東區材木町二ノ一 奧本商店

將來의化學戰은 鹽에서시작된다

現代戰에잇서서 化學戰이 차지하고잇는 地位가 매우重大하다는것은 呶呶할必要가 업다 毒까스 溶液 燒夷劑等化學戰에 잇서서 兵器의種類와 其範圍가 漸次擴大되고잇다 化學兵器의威力은 强烈하야 其殘虐性으로非人道的이라고하야 其使用이 禁止되고잇스나 國家가 一旦危急之際에 이르면 神聖한 國際條約의 法規도 一枚의休紙로되고마는것이다

어化學兵器는 무엇으로 만드느냐하면 거의全部가 鹽을原料로하는것이다 우리들의 日常食卓우에잇는 鹽이가장 可恐할殺人道具로 一變한다고야??

滿洲事變當時에 大阪某藥商이 滿蒙問題를 어르렷다하야 一時騷動을일으킨것도 其內容은 이鹽을 잡엇다 안잡엇다하는데 잇는것이다

鹽은 川中島의 古戰談도잇지만古昔으로부터 米鹽이라하야米와相並하여서 人間生活에 不可缺의 必需品이다 一人當一年에七斤의 鹽이生存에 必要하다하는데 이鹽이 또曹達의原料가되고 그것이 轉轉하야 化學兵器로까지 變化한다하니 鹽이야말로 消化劑의 操作여하라 할수잇겟다 鹽이 工業上 特히 큰原料商品으로서 重要性을 增加하고 國家의政策에까지 影響된것은 我國의曹達工業의 發展에 因하는 것이다

日本內地에서는 瀨戶內海方面에서生産되는것이 年約六千萬斤이라한다 그것도 文字그대로의 粒粒辛苦心의結果의數字라하니 寒心한일이다 이것은 全部食料品으로서 專賣局이拂下하고잇는데 一萬斤의 生産費는 忽然六十圓에達한다고한다 一方內地의鹽需要額은 工業用만으로 本年度에 잇서서 百六千萬斤이라고 想定되고잇다 이不足分은當然히 外地或은 外國에서 輸入하여야한다 本年度의輸移入計畫은 關東州、滿洲、北支、山東、臺灣等의近接에서 約百萬斤、外國에서 約四五十萬斤殘餘는 昨年度의殘留品으로補給할豫定이라한다

現在와가티 國家와 國家間이 尖銳한對立을하고잇는때에 언제까지나 鹽과가튼重要한 資源을 外國에서 輸入한다는것은 國家의資源政策上極히危險한일이다。 반드시 이것은日本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日本의勢力圈內에서 獲得하여야될것이다 이것은 單只資源政策上 必要할뿐아니라 國際收支의均衡이라는 見地에서도 絕對로必要한것이다 昨年에 政府가 近海鹽大增産에 着手한것도實로 이點에서 出發한것인데 이것을『近主遠從主義』라稱하고잇다

明五個年後 日本의 工業鹽의 需要高量 二百五十萬斤으로 想定하고 其의八割―二百萬斤을近海鹽으로 供給할는것이다 其配定은(單位萬斤)臺灣二五〇◆關東州六〇〇◆滿洲 四五〇◆北支三五〇◆山東 四〇〇◆計二、〇五〇으로되여잇고이의 直接生産에 鹽業(以上關東州)滿洲鹽業(滿洲)興中公司(長蘆)山東鹽業(山東)各社는 近海鹽協會를 組織하고 一專賣局과密接한連絡을取하고 또 相互로 橫의連絡을取하야 國策의實現을期하기로하엿다 『近主遠從主義』는 我國鹽業史上에金字塔을樹立할것으로 큰期待가걸려잇는바 그內容을 仔細히檢討하여보면 이것을契機로 日本의 工業鹽政策도 六十年以來의 外國依存의長夢에서 覺醒할수잇다고하는것을 感得할수잇다。

이와가티 鹽政策에잇서서도 全面的轉換을하는同時에 外國鹽의 取扱에關하야서도 이에對應하는 新政策을採하엿다。

그것은從來個個로하고잇든 買付를統一된 理想과方針下에 組織的 系統的으로하고 또買付에當하야 我國과外交上 通商上親交잇는나라를 第一線으로하는것이다 外鹽輸入協會가結成된것도 이러한政策에서 나온것이다。 本年度에는 外鹽輸入은四十萬斤을넘지안흘것이며 또이輸入鹽의適率數는 如上한國策的見地에서伊太利領에서 于先輸入할것으로본인다。

다음에鹽의配給方法에關하야一言하면 輸移入鹽은代理輸移入者의손에서 一次專賣局에 收納된後에 專賣局에서는 年度初미리査定한 配定數量에따라 各工業家에 拂下하는形式을取하고잇다。

이와가티鹽도 戰時의 花形物資로서 國家防衛에 크다란役割을 擔當하고잇는것이다。

(寫眞은 天日製鹽狀況)

産業모메

落花生

落花生은 支那로부터 渡來하엿스므로 南京豆、唐人豆의 이름이잇는데 氣候가 溫暖한곳이면 海岸河邊等 다른作物의栽培가 適當치 안흔곳이라도 조코 또大小麥의 間作으로도 適當한것이다

種類를 大別하면 大粒種과小粒種의 二種이잇는데 大粒種은 食用 小粒種은 搾油用으로서 適當하다 氣候는 乾燥하기쉬운 더운地方이조흔데 土質은 輕한砂質 또는 壤土로 排水가 良好한곳이 가장조타

播種은四、五月頃 畦幅은 三尺 株間은 一尺乃至二尺마다 一株二粒씩을 播種한다

種子는 미리莢殼을 除去하고 물에담거두엇다가 日光에 쪼혀서 多少萌芽된것을 使用할것인데 反當四、五升을 要한다

肥料는 堆肥에魚肥又는油粕類를 混合하야 過燐酸石灰를주는것이조흔데 通常이것을 基肥로 使用한다

어가려하야 發芽한後四十日가량되여 最初의除草 中耕을하고 또한 一個月後에 第二次中耕을行한다 이때는 莖葉이 繁盛하야 밧고랑을 덥게될때는 밧가운데 드러가지안토록 注意하는것이조타 收穫은 十一月頃 葉이黃變하야 한쪽씩 뽑아 脫落할때 뿌리캐서 뿌리를 上方으로 向케하야 太陽에 乾燥케하고 다시 打落한後에 充分히 乾燥케한다

라이온치마

總當選大懸賞

壹等
(1) 美術置時計
(2) 最新式조이제型寫眞機
(3) 高級空氣銃
(4) 크로무側腕時計
(5) 無線受信機(라지오)
十二名

貳等 萬年筆과 샤푸펜슬세트 四十名

參等 優美箱入手巾 一百名

四等 스타시럭연鉛筆(半打) 六百名

等外 라이온치마분(試用) 殘全部 (但應募者 千萬名單位)

懸賞課題

어느家庭을勿論하고朝夕으로반드시使用하는物件中、虫齒豫防에第一有効한것이무엇입니까 左記○票를한곳에適當한文字를記入하시요

ラ○オン齒磨 又는 라○온치마분

締切迫到!

아직應募하지안하신분은速히答案을보내주시오!

應募規定

一、應募用紙 虫齒를豫防하는가장優秀한齒磨인 다음五種中어느것이나 [illegible]
◎라이온齒磨(家庭用大、中、小形)의外函의表面
◎라이온齒磨袋(特大袋、大袋)의上部를四分之一로分하야 그것을 表書로서의 紙面에貼付할것
◎潤製라이온齒磨의帶封을떼어 그것을 表書로서의 紙面에貼付할것
◎라이온齒刷子(一號形・二號形・三號形)外箱表面
◎라이온齒磨本(一號形・二號形)의外裝紙

一、答案쓰는法 應募用紙에다음의四條件을 알기쉽게쓰시오
一、課題의解答 二、希望하시는一等賞品中의名稱 三、住所와姓名 四、廣告를보신新聞紙名

一、送付方法 以上을 仔細히쓰신後 販賣店에付託하시면 送料도들지안코 便利합니다。或은直接郵便으로보내도좃습니다。[illegible]

一、보내는곳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日韓ビル內 라이온齒磨朝鮮駐在所懸賞係

一、締切 七月二十日

一、抽籤方法 八月上旬、所轄署員立會下에 嚴正히抽籤함。一等은正解者만을抽籤하고、二等以下는一等에서落選된分도 合하야順次로抽籤함。

一、當選發表 九月中旬、主要한新聞紙에一等、二等、三等의當選者만을發表하고 其他는賞品發送으로通知함。

二百卅萬圓工費로 國境道路를新設

甲山郡서咸南北道界까지로

軍事、產業上期待多大

【咸南支社發】 함남도갑산군보천면(甲山郡普天面)으로부터 함남북양도 도계에이르는 소위국경경비도로는 군사상 산업상 극히주요한도로로써 금년도에 거어히착공하게될 도당국에서 그설계를 예의연구하고잇던바 마침내 요지음에 그설계를완성하야 불원내로 착공하기로되엇다 이도로는 연장백리로서 이에요하는 공사비만 이백삼십만원의 거액에달한다고 한다 이도로가 개통되는날 함남도의국경경비에 한시기원을짓게될것이며 산업상에도 지대한이익을 가저올것으로 각방면에서기대가크다고한다

巨額喜捨한兩女史 獎學碑建立除幕式

【延安】 연백군홍현공립 소학교(湖東公立小學校)는 작년까지사년제이든 학교로서 해마다 입학지원아동의 수효가 증가하야 [illegible]

金馬廣野水國化

六日來의豪雨에河川氾濫으로

被害狀況은調查中

【洪城】 충남홍성지방(洪城地方)에는 지난육일오후네시경 부터 나리기시작한비는 칠일오전일곱시까지 계속적으로 폭주하여 [illegible] 금마천(金馬川)이 범람하야 [illegible]

傷害致死犯에 懲役三年求刑

【慶南支社發】 경남동래군동래읍복천동(東萊郡東萊邑福泉洞) [illegible]

當局에善處陳情

碧潼邑民大會決議로

【碧潼】 압강수전(鴨江水電)으로 팔미아마 국경일대에밋치는 영향이만흔중 특히 평북 벽동(碧潼)읍내에도 그영향이 크다하야 일반주민은 여러가지로 염려하던바 [illegible]

大田府廳移轉 十一日부터執務

【大田】 대전부청은 대덕군청사를 수리하야 이전하려고 [illegible]

姑婦가싸우고 少婦鐵道自殺

【慶北支社發】 [illegible]

平元線殘工區 一七키로六着工

【平南支社發】 평원철도(平元鐵道)는 금년에도 [illegible]

時局憑藉惡商人 調查後嚴罰方針

忠南保安課活動開始

【大田】 현하비상시국을 이용하야 폭리를취하는자가 잇지나하지안는가하고 각방면에서 매우주시하고잇는터이며 [illegible]

背山臨水조흔터에 咸化敎護의理想鄉

少年刑務所聯想은크게잘못

元山特派員 卞龍甲記

자본주의문명의 세례를 밧게된 조선의 문화도시의 이면에는 악의화(惡의華)인 유린된 소년소녀의 왕국이 건설되여감을 보게되나니 이일꾼은 세상이 진보되면 진보될수록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화해 갈수록 그에비례되며 증가의일로를 밟더듬고잇슴을 본다 [illegible]

運賃特割廢止는 平壤栗에大打擊

制度存續要望聲高調

【平南支社發】 평남의 특산물중 평양율(平壤栗)과 평과(平果)가 해외에 만히수이출되고잇고 그중에서도 평양율은 [illegible]

千代町郵便所에 怪漢이侵入

【釜山】 [illegible]

大詐欺事件公判

懲役最高二年을求刑

七日釜山地方法院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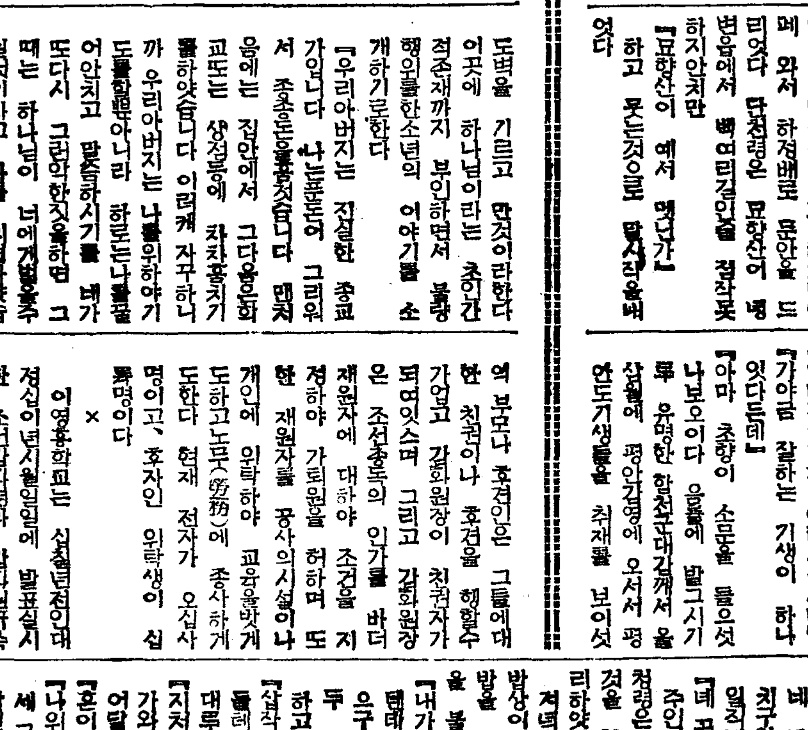
【慶南支社發】 부산부좌천정 [illegible]

癲癎病든處女 大同江에溺死

【平南支社發】 [illegible]

印章小切手窃取 樂器店雇人犯罪

【平南支社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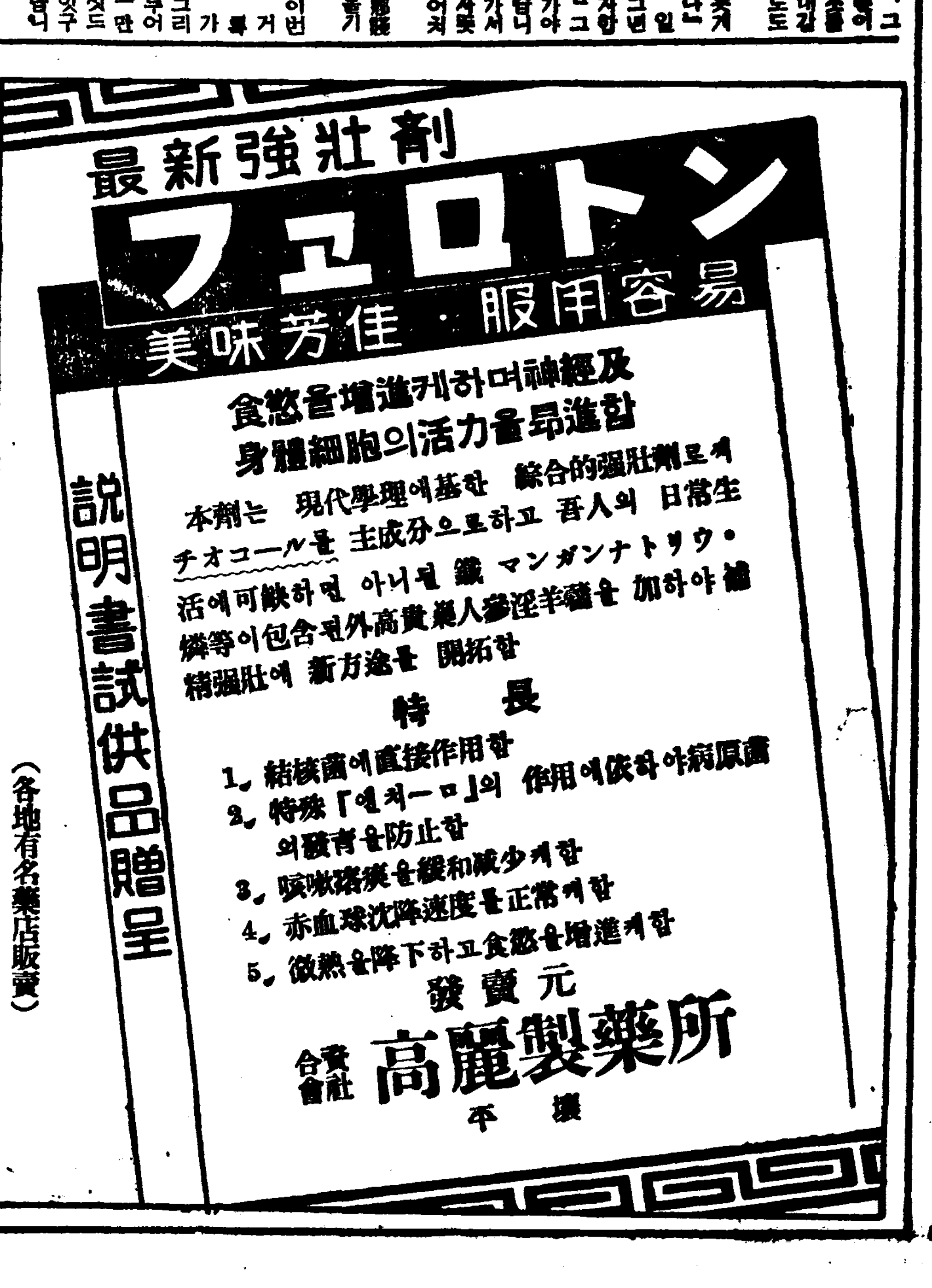


長篇小說 林巨正 【131】

洪碧初 作 / 金熊超 畫

피리 (十二)

[illegible]



最新強壯劑 フェロトン

易容用服・佳芳味美

食慾을增進케하며神經及身體細胞의活力을昂進함

本劑는 現代學理에基한 綜合的強壯劑로서 チオコール를 主成分으로하고 吾人의 日常生活에可缺하면 아니될 鐵 マンガン ナトリウ 燐等이包含된外高貴藥人蔘淫羊藿을 加하야 補精強壯에 新方途를 開拓함

特長

1. 結核菌에直接作用함
2. 特殊「엔치-ㅁ」의 作用에依하야病原菌의發育을防止함
3. 咳嗽喀痰을緩和減少케함
4. 赤血球沈降速度를正常케함
5. 微熱을降下하고食慾을增進케함

說明書試供品贈呈

(各地有名藥店販賣)

發賣元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平壤

嬉しいお知らせ

洋裁와手藝면뭇이든지아는 「洋裁講習錄」

內容見本과 月刊 洋裁之研究 三個月分無代進呈

東京高等技藝學校

申込所 東京市牛込區卅河原町

麻雀 自家製造 東京淺草藏前 下方屋

倶樂部向・家庭向・牌彫直改色

速修 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英語通信研究會 京城府樂園町五五

●定評ある！詳解漢和大辭典！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定價三圓八十錢を夕ダの一圓卅錢で大投賣す

千五百頁大册

御註文は至急を要す

國民書院日報係

뚝섬 遊園地에 大小人풀・銀沙場 보-트・모-다보-트 江전너편은 大本山 봉은사 車賃東大門에서往復二十錢 京城軌道

광나루건너새藥水

廣壯里 人道橋밋헤는遊船？貸보-트具備 다리에서오리쯤거러가면 녹음이욱어진경치조흔곳에새藥水와 車賃東大門에서往復三十錢 道會社

별표고무신 모양잇고 트튼한

中央商工株式會社

어느家庭에서고大歡迎！

明治の菓子

チヨコレート・ビスケット・ドロップ・キャラメル・ゆであずき・シラップ

輸出積極的振興

輸出入링크制登場 貿易行政機構統一

①

輸出振興策으로 第一에 들것은 根本的 貿易政策의 樹立과 貿易行政機構의 統一이다. 今日까지의 實情을보면 根本的 貿易政策의 樹立이라는 點에 있어서 遺憾되는 바가업지안엇다. 無計畫 無系列的 輸入制限은 一時的應急策이라는데 지나지못하고 統一的貿易政策에서는 먼것이다. 勿論貿易政策을 根本的으로 樹立함에는 貿易의 前途에 對하야어느程度까지 見透이 可能함이 必要하나 事變下에 잇서서는 이點이며 困難한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制限의 對策은 ... 現在의 我國으로서는 單只 輸出入의 均衡을 圖謀하는데 滿足하지말고 可及的輸入能力을 確保하여야하겟다. 그럼으로하야는 輸出增加에 最大限으로 努力할수밧게업는것이다.

다음에 貿易行政機構의 統一問題이다. 從來我國의 貿易行政은 商工省 大藏省或은外務省에 分掌되어 各省間에는 何等의 有機的連絡이 업고 各其別個의 政策을 取하야왓다 貿易統制時代인今日에잇서서는 ...

[illegible]

明年度最高價抑制 米穀統制法改正

或은國家總動員法發動

【東京】昭和十三年米穀年度의公定標準米價는 最高三十五圓四十錢 最低二十七圓三十錢으로 이것을 昨年에比하면 實質上最高二圓十錢, 最低三圓의 大幅引上인데 本年에들어와 一般物價는 依然昂騰하야 이에따라米價도上昇하엿다 그리고公定米價決定의 基準이되는 物價參酌價는 本年度公定米價決定當時에 採用된昨年十一月의것에比하야 겨우五個月間에 一圓五十八錢의 昂騰을보이고잇고 一般物價指數(四月)를 基礎로하야 五月의物價 參酌價를 算出하면如左하다

物價參酌價 上一割 二割 三割 値 下一割 二割 三割

十二年產米適用의物價參酌價 [illegible]

本年五月의物價參酌價 [illegible]

이와가티 物價參酌價가 昂騰한結果 가령最低價格이米穀統制法이 許容하는 最低限度로決定된다하드라도 二十八圓十八錢이라는立場을 직히지못하게되엿스므로 農林省에서 公表한 昨年의 最高, 最低兩方面으로 挾擊된 米穀政策의 破綻에對하야는 米穀生產費(二十七圓六十五錢)를 完全히保障하는結果로되고 一方目下 米穀局에서 十四年 米穀年度의 公定價格決定에 備하야 對策을講究中인바 最高米價는參酌價의 上値二割이라하면 四十二圓二十八錢의 高價로됨으로結局家計米價로서 決定할수밧게업슬것이다。그러나家計米價를 抑制에對하여는 政府의物價政策에順應하야米穀統制法의根本的改正乃至 國家總動員法十九條의 發動을考慮하고잇다한다

正租新高價 一斤九錢八厘

八日의 仁川正租는 一斤에九錢八厘로 新高價를 示現하얏는바 이는 稻熱病 虫害等의憂慮로 產地態度가 强化된것과 品薄定期高等에 因한것이라한다

朝鮮米聲價維持 品質徹底改良

詳細한實施事項通牒

丸ナ角フ의 格下問題를 中心으로 最近 內地市場의 朝鮮米一齊시取扱行 乾燥의徹底等 產品質은 惡評이므로 總督府에서는 先般來 米穀課長 穀檢所長及 各道農務課長을 內地市場에 派遣하는同時에 主任技師를 東京市場의 味村米生產地인 秋田 岩手兩縣及 關西市場에 王座를 占한 滋賀米의 生產地에 出張하야 調査報告를 綜合한結果 內地에서는 兩三年來 獎勵品種의統一, 種子更新의徹底, 堆廐肥의增施, 草稻魚肥等의 有機肥合普及, 耕種法의改善, 黃熟期의 米改良에 努力한때문에 特히品質(食味의點에 非常한 向上을示하야 內地市場에서의 朝鮮米中에는 그만 못한것이 생기고 東京, 大阪, 名古屋, 神戶等의 大都市에서는 最近脉芽米의 普及이非常하므로 脉芽米의 原料로서는 食味가 一層重大視되어 胴割, 燒米, 厩腐米, 赤米, 石砂의混入이 가장嫌忌되는것이 判明되엇스므로 前記諸事情을 考慮하야 官民一致에依한 朝鮮米의 品質向上을 一層積極化하야 朝鮮米의聲價를 維持할必要를 痛感하고 그具體策에對하야 鋭意對策中인데 最近 米穀事情에鑑하야 再三通牒하엿고 十三, 十四兩年度產米에 對하야 左記諸事項에 關하야 詳細한 實施方法을定하야 八日 各道에通牒하엿다

▲第一、十三年度產米에對한實施事項

四、驅虫防除의徹底

五、小束立乾又는架乾의獎勵

六、脫穀調製의改善

七、正租의乾燥와 火力乾燥機의合理的操作方法의指導

八、籾摺作業의指導

▲第二 十四年度產米에 對한實施事項 第一의 實施事項外에 如左한事項의 勵行에 努力할것

一、水稻種子更新事業徹底

二、食味向上을 爲하야 特히必要한實施事項

三、本年의實績에 鑑하야 苗代를改善하고 健苗의育成에 努力할것

四、本畓의改善事項

魚油隨意契約

十七萬九千罐引取 二圓八十一錢식에

魚油共販入札은 七日 日本油脂間에 隨意契約이 成立되어 二圓八十一錢에 十七萬九千罐을引取하얏다 이것은 本年度의 新物初入札인데 入札한 日本油脂에서는 그대로 魚油購買會社에 引繼하고 同社를 通하야 共同購入 加盟各社에 配給키로되엇다

極히 不圓滑한 現象이뿐아니라 天下名山金剛山에 重石, 盜掘이 盛行하야 每日二, 三十廳이 京城府內數十處買鑛所에出廻되고잇스므로 이것을 防止하는一方 重石配給圓滑의 徹底를圖하고저 總督府殖產局에서는 不日間 重石業者들을 招集하고 協議한後 그統制組合을 組織하고저 方今準備中이라한다

이리하야 購買會社側에서는 入札基本契約의 條項에準據하면서 事實上共同 購入의實績을 擧키로되엿다한다

家蠶絲生產狀況

製造戶數減、生產增加

昭和十二年의 家蠶絲製絲戶數는 器械製絲에依한것 七十八戶(其中休業한戶數三戶) 其釜數九千五百十九釜(其中 使用치안는釜數六十八釜) 生絲製造高百二十五萬一千四百六十八瓩 (三十三萬三千七百二十四貫) 其價額一千五百八十萬一千二百九十四圓 이엇다 坐繰製絲에依한것이 戶數는 三十三萬 其他에依한것이 戶數는 三十三萬 三千八百三十一戶 (其中休業한戶數三千五百九十一戶) 其釜數三十二萬二千八百九十七釜(其中使用치안는釜數 二千二百六釜) 生絲製造高百六十二萬九千七百四十五瓩(四十二萬[illegible]) 合計의 製絲戶數는 三十三萬三千九百九戶(其中休業한戶數二千百九十四戶)로 其釜數三十三萬二千四百十六釜 (其中使用치안는釜數二千二百七十四釜) 生絲製造高二百八十八萬九千九百四十四瓩(五十七萬九千九百七十四貫) 其價額二千二百五十三圓을 算하야 前年에比하면 製絲戶數는 一萬九百三十三戶(三分二厘)의 減少를 示하얏스나 生絲製造高는 一萬五千二百三十二瓩(四分)의 減少를 示하얏스나生絲製造價額은 二百二十八萬圓(九分二厘)의 各增加를 示하엿다 다음에 器械製絲工場의 職工數는 男工一千二百十二人 女工九千五百六十六人 合計一萬七百七十八人으로서 前年에比하면男工 三十二人(二分七厘) 女工百七十八人(一分九厘) 合計二百十八人(二分의 增加이엿다

生으로하고 卒業後同社에서雇傭하기로되엿는데 規模를漸次擴大하야 將來는一般에도開

重石水鉛積極增產

至急히事業을開始하라고通牒

不服從이면强制讓渡

戰時體制에對備하기爲하야 重要鑛物增產令을 發布實施할것은 이미아는바이거니와 總督府에서는現下時局이 容易치아니함에빗치워 重要鑛物增產令實施에對하야 一層强化徹底化를 圖謀할必要가 切實함을느끼고 重要鑛物增產令에依하야 爲先「텅그스텐」(重石)等 두가지의 特殊鑛物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增產을斷行하기로決定한後 不日間이에對한通牒을 關係方面에 發하기로되엿다 그內容의 大略은 即以上 두鑛物에對하야 事業을積極擴張하며 水鉛鑛山에 對하야는 至急히事業을 開始하라는것이다 萬一命令에服從치안는境遇에는 重要鑛物增產令에依하야 斷然有望한企業家에 讓渡를한다는것이다 그리하야 國策事業에順應하도록하는것인데 實際에잇서서는 現在貧弱한施設로서 天然의寶庫를 格外으로 開發하지못하는 重要鑛物의鑛山은 朝鮮總督의 評價에依하야 다른企業家에 讓渡하라는 嚴命을밧게되는것이니 여기에는 貧弱한 施設의貧弱한 中小鑛山業家들에게는 實로非常한痛棒이라하겟다

重石統制組合組織

配給圓滑을圖謀코저

最近 特殊鑛物은 軍需關係上 一狗하고 業者들은 買占, 買占等 絕對必要함에도 不拘하고 其他여러가지 弊端으로 配給이

小額殖產債券

大藏省도諒解

殖銀小額債券의 發行은過般水田財務局長이 大藏省과 極力折衝한 結果大體諒解를 得하야 目下渡東中인山地理財課長이 細目을 交涉中인데 小額債券은 二十圓, 十圓, 五圓의三種으로 나누고 賣出價格은 二十圓券十圓, 十圓券五圓, 五圓券三圓으로內定하엿다 右는 特히農村의零細한資金을 獲得키爲한便宜를 考慮한것이라한다

20圓券	10圓
10圓券	5圓
5圓券	3圓

製絲場臨檢檢查

一個年間의統計

自昭和十二年四月一日 至昭和十三年三月末日期間의 各道製絲業取締官吏의 臨檢檢査의 製絲場數는 六十八로서 臨檢檢查의 件數는 百十一件이엇다 이것을 臨檢檢査의 目的別로보면 操業狀況調査에關한것 二十七件 製絲場의 一般狀況調査에 關한것 二十六件 製絲業令의 違反行爲의有無에關한것 二十四件 製絲場의設備調査에關한것 十八件 原料繭의需給狀況調査에關한것 六件 其他에關한것 十件이며 이것의結果 朝鮮製絲業令第二條第一項의 規定違反一件 同令施行規則第五條第一項第一號의 規則違反一件이엇다

漢江水電 認可在近

社長은有賀氏

有賀光豊, 高橋省三氏等이 申請한 漢江水力發電會社 (資本金二千萬圓)는 遞信局의 審議를마치고 目下內務局에서審議中인바 來月中에는 認可될豫定으로 認可가 잇스면 곳會社를 創立할터인데 社長은有賀光豊氏로 內定되여잇다 同水電의出力은 第一期十萬키로로 春川附近에 第一發電所를 建設할터이라한다

貯銀殖產積金 九千萬圓肉迫

貯蓄銀行의 殖產積金은 順調로운增加로서 上期末概算이 八千七百五十餘萬圓에 達하야 九千萬圓을 肉迫하고 期初에比하야 一千二十萬圓이 膨脹되엿다 貯蓄獎勵의 時潮에따라 同所에서는 積極的으로 活躍하고잇스므로 森頭取의 抱負인 『一億圓』 目標 一億圓獲得도 本年內로實現이 期待되는狀勢라한다

經濟界消息

○朝陽鑛業拂込終了=朝陽鑛業資本金五百萬圓四分之一拂込은七日株式第一回拂込을終了하고來二十一日銀行集會所에서 創立總會를開催

○高周波重工業 技術員養成所新設=日本高周波重工業에서는同社의事業擴張에對하야 技術者의 拂底로今般城津工場에 附屬한高周波工業技術員 養成所를 新設하기로하고잇는데 目下準備를進行하고잇는데 同養成所는 電氣, 治金, 化工, 機械의 四科에分하고 二個年修業으로 高等小學校卒業生約二百名을 收容할計畫인데 生徒는全部給費

株式

東新百卅圓割

鐘紡二百十圓台割

前場慘落 昨日後場에新低價로 慘落된것을이어 軟派의突擊이 去益甚하야 東新은드디어 百三十圓關係를 깨어저 百二十七圓九에 鐘紡도二百十圓關門이깨여저 二百八圓四에 大新七十四圓五에慘落되엇다가 東新八圓六 鐘紡八圓八厘七十五圓三에大引

後場反戾 前場慘落後 後場은 利喰買로 東新百二十九圓一인五高, 鐘紡二百九圓丁인 二高로 小戾寄付後 東新百三十圓關門, 鐘紡二百十圓을回復하는 反戾이엇다

스·파統制强化

『올림픽』中止

【大阪電話商通】東西株式市場은 今朝鐘紡을 中心으로하야 一齊大下放을演하엿는데 이는當局의 『스·파』 混紡絲의 統制 再强化說擡頭와 嫌氣賣崩된때문이오 올림픽返上說 萬博延期說等 相富히 人氣에刺戟을 助長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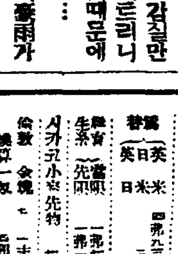
昨年底價再現

事變一周年記念日에 時局再認識, 上海테로事件續續, 對佛抗議等으로 市勢는 再轉惡化하더니 今朝는 스·파統制强化, 올림픽中止說等으로 賣叩되어 問題의 東新百卅圓大關門이 손쉽게깨지고 鐘紡도二百十圓大關門이 깨어저 瀕死의 買方을 回春치못하도록 아주숨을끊어버리는 形態이엇다 東新으로말하면 昨年의底가 百卅七圓十錢이엇는데 今朝東京低價는 百卅七圓七十錢으로 겨우 六十錢을남기고 九圓臺로 利喰限大引되엿다 鐘紡도 亦是二百圓關門關如何가 注目케되엿다 本格的經濟戰에處하야 東新、

新價位論擡頭

資本主義 自由經濟가 發達된 日本의 株式市場에 잇서 東新이 株界의 花形으로서 世界無類의 獨特性을 發揮하야 『東新信者』 라는 말까지 생긴 程度로 活躍되엇든것은 昔日之夢이다 이것이長久하얏고 또는 컷든만큼 비록二·二六事件으로 혼란되지만 其後도 亦是 東新中心이엇고 間或 鐘紡이 投機株로서 文武兼全格으로 東新에 代位하야 雄弁을 빗나는것은하얏지 만 東新에 그래도 東新으로서 展開될모양?

鐘紡가는投機株는 얼마까지떠러저야 限界라할지時局認識을徹底히한다면 東新百圓도可也오 五十圓도可也라하겟스나 市場으로서 特殊한觀念과 市勢의實際等이잇서 平時와가든생각을 버리지못함으로서의 前途를悲觀하기어려운곳에 仕手로서의 迷夢이엇는모양이다



株……東新은 遂百三十圓割로 昨年低價를大十錢식깨트리고 鐘紡도二百十圓臺를 割하고 東新百四十圓이 底라하야 제법反撥되던百三十圓으로 結局은百三十圓, 百三十圓으로 價位를低下시킬뿐◆所謂投資組合이라는것도 東新, 鐘紡은 무엇이 무엇? ◆經濟界變革을 準否히反映하야 八十圓이던지 五十圓이던지 統制時代에 適合한것이 되기까지는 나와잇스면 實方의末路이나엇을

米……朝鮮은早魃끄테豪雨가 내리고 작구조홍소래가 들리니 흐리나는 로▲勿論이러커때문에 보이스는것이 싯겟지만은……려만……▲慢性的으로 강질만 襲來한다 그러나 市勢에는若干行動을加할뿐으로 反하昂騰로▲이번暴雨에 稻熱病이 얼마큼緩和는모양이나 아주모厲家의 憂慮는 一掃되지못한▲그러고目前의好順은 安心하지못할것이事實, 天災期의 經過할 點으로 보아서▲今朝의反高는그 主因을 알수업는것 一部의 觀測은 七月一日現存米의 減少를 前提로삼은것이지 아닌지를 모다고▲果然그增減이 如何?

今日의市勢

後場堅保

後場은 三十二圓五十錢인 不變裡에 始出한後 二節五十三錢으로 三節五十一錢, 五節五十錢 二錢에 細刻이엿다

豪雨에反對高

一時 旱魃가 不無하고 또稻熱病의 被害가 不少하야 農家의 愁眉를 펴지못하던때 朝鮮의 豪雨는 마침 到來하기시작하엿다 昨朝의 當地先限 三十二圓三十一錢은 一昨보다의 七丁고 할수지는모르나 低落의度는 反落으로 降雨의 行動을하엿다 此에 止할뿐으로 今朝에까지 雨天을 繼續함에도 市勢에는 何等의 影響이업시 反對高를 示할뿐이다 要하면 今番降雨에稻熱病이 얼마나 驅除되엿는지 此의 憂慮는 아즉 一掃되지못하엿슬것으로 觀測하는모양이요 또 市勢가 오르지 못한만큼 朝鮮의 道穀 東京及 神戶의 大水害에 好雨를 軟材視하지 아니할수 事實이다 何如間 天災期가 아즉 遠然한 今日에 目前의 好順을 보고서 買安心할수업을것은 期로보아서의 當然하다고 할수잇다 그러므로 아프로 十用의 天候又는 開花期인 二百十日을 지난後에 비롯오 本格的市勢가 展開될모양?

期米 雨天이나 反强

前場反高 今朝朝鮮雨天으로 阪地三十五圓十一錢인 三丁高로 接하고 當은 二圓十四錢中은 二圓三十九錢인 二丁低로 先限은 三十二圓四十錢인 昨日과 同様으로 場을始한後 阪地七節에 十九錢으로 反戾하야 阪止二十二錢으로 示하드니 十六錢을 보고 五十錢에 反撥止場하엿다

國債少高下

【東京電話商通】依然히 新規材料가 乏함으로 閑散氣가 엄고 小口商談이 잇을뿐이며 市勢는 釘付同樣의 狀況이엿다 겨우 仕手買로第一回五分에 依하야 甲號五錢低로 第二回五分의 中限五錢低의 高下를 示할뿐이엇다

第二回五分一〇三、六〇 二十八年物九七、七〇 佛貨四分一九八、四〇

朝鮮殘米待望

七月一日現在朝鮮殘存米는 어떤한 數字를 보일지 强氣派의 一個月間消費量 八十萬石이라하며 弱氣派는 各自主唱하는 關係上 今回發表될 殘存數字의 增減에도 多大한 關心을 가지고 잇거니와 來米穀年度持越에 더 욱莫大한 關心을 가지게 된다 比較觀察의 中心인 七十萬石을 一個月消費量으로하고 去五月一日現在殘存米 七百六十一萬石을 控除하면 五、六兩月의 消費量 百四十萬石을 除하고 또五, 六兩月의 內地移出高 百八十萬石을 控除하면 殘存高가 四百十一萬六千石이 될模樣이다 그러면 七月一日의 殘存米가 얼마가되는지 모르나 何如間 四百十一萬六千石이 못될것이 事實일것으로 約四百萬石을 基準으로하고 今後十月까지의四個月間 消費及 內地移出을 打算하여보면 消費量이 又一個月을 잡아서 一個月九十萬石으로 假定한다할지라도 四個月間에 二百八十萬石이나되고 道內地移出을 端境期까지에 百五十萬石으로 算定하면 豫想한다할지라도 特越米는 五十萬石에 不過한 數字로서의 奇現象을 呈할모양이다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正米强調

正租高로

京城少戾 適雨로 因하야 品薄으로 反動기分에 진모양 正租의 新高價로 躍進함을듯 고 兼하야 內地水害莫大와 七月一日現在의 在米減少說等의强材로 市中人氣도强硬하야 各地清算의 反戾할뿐이고 市勢도 五錢乃至 十錢反戾하엿다 一等白米 三三、一〇 四等三一、九〇

仁川上進 天候 不順으로 稻熱虫害憂慮로 產地의 態度

木浦釘付

地方의好順이라는目前에큰軟材될보이는一方七月一日現在의殘存米減少說과 內地水害莫大로 東地는依然한 强硬으로 强弱交錯에 市中人氣도 氣迷狀態를 未脫하고 內地人注不振으로市勢도 前價同樣의釘付이엿다 ㊂銀坊主三等 三三、〇〇 一等白米 一、七〇 四等三二、九〇 一等白米 三三、四〇

群山奔騰

內地에天候快晴의報를 傳하고 衆하야 朝鮮內의 適雨로 好順이여서 稻熱病도 憂慮도 移秧의適宜로 不安이一掃하야 奧地도挫折되고 正租도마침내 一厘低를傳하야 市中도이에追隨되여 軟化의傾向을 示하야各地淸算의弱調도 不拘하고 市勢는 十錢乃至十五錢賣叩되엿다 ㊂銀坊主三等 三三、九〇 一等白米 三三、八〇

大邱膠着

意異的消費減增說은 減穀期에 一層拍車를 加하고 在米減少說로 絕品側은 適正價에는 多少의 買氣를 보이나 好順을 觀望하고 積極味가업고 目前에 切迫한 殘存米發表待로 慎重態度이여서 場面은 閑散하고 實質는 釋膠되여 市勢는 不動이엿다 四等三三、八〇 一等白米 三三、三〇

釜山少高

天候恢復待로 農地의 出廻가 업고 需給관계는 大體로 七月一日의殘存米發表待로 商況은 結局賣方이 不實不實하는 底値이나 市況은 正租高에 依한 原料入手難으로 十錢上放하고 底堅이엿다 四等三三、六〇 一等白米 三三、六〇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府 ... 電話

今日財界 八日

[illegible]

京城物價 (八日)

[illegible]

海外經濟 七日

[illegible]

銀行券 七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illegible]

鰯油粕 麥粉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穀雜◆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朝取主要取組高◆ ◆實定代引日步◆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